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yellow and black robe, is shown in profile, looking out of an arched window. Her right hand is raised, palm facing up, as if gesturing towards the view. The view outside the window shows a city with many spires and domes, likely a historical or fantasy city, under a sky with soft, orange and yellow clouds. The title '서녀의 파사칼리아' is written in large, stylized white Korean characters with a black outline, positioned in the center of the image. Below the title is a small black circle containing the Roman numeral 'I'.

서녀의 파사칼리아

I

배민지
판타지 장편소설

몽골북스



서녘의 파사칼리아

서녁의 파사칼리아

지은이 배민지
출판사 몽글북스
날짜 2024년 12월 19일
메일 qoalswl2003@sookmyung.ac.kr
SNS @Name_no_empty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자와 출판사 양측의 허락 없이는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거나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서녘의 파사칼리아

Passacaglia in the Western night

몽글복스

추천사

보배는 감추어야 빛이 나고, 가장 반짝이는 보석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이 작품 또한 마땅한 찬사를 받으리라고 이미 예견되었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추천사를 맡기는 동안에도 이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사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내게는 <서녘의 파사칼리아>가 집필되기 이전부터 저자가 글을 쓰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좋아하는 책에 대해 몇 시간이나 이야기하기도, 좋아하는 소설의 결말과 그 인물들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기도 했다. 문학 작품의 한 페이지를 붙들며 울고 웃고 화낼 줄 알던 아이들이, 이제는 누군가가 울고 웃고 화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청년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에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다. 더 유려한 추천사를 적을 수 있었을 사람들 대신 비전문가인 내게 추천사를 작성할 기회가 돌아온 것은 어색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저자와의 치열한 사투를 통해 마침내 읽게 된 <서녘의 파사칼리아>는 정말로 그럴 가치가 있었다.

활자에 폭 빠진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서사시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부터 명명백백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마법과 신화의 땅, 황금의 도시 ‘칼라’를 묘사하는 특유의 건조하지만 수려한 표현은 활자만으로도 겪은 적 없을 낯선 세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 아직까지 이 이야기에 ‘옛 영광’을 기억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작가들이 적어내리는

음을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라나지 않았던가? 적풍이 부는 메마른 들판, 역병이 든 마을과 살찐 시궁쥐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노라면 수백 년 전 인류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그러나 저자가 만들어낸 세계의 인물들은 신의 심판보다는 굶주림과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다. 우울한 사람들의 말에는 뼈가 있다. 권위를 지닌 자의 말에는 수치가 없다. 저자는 시대를 바라보는 특유의 섬세한 시각으로 기적이 온존하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서녘의 파사칼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직은 이 이야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진 않을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려 한다. 언제고 소년(少年)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의 손을 빌려 계보로 내려오는 법이다. 당신이 초등학교 도서관의 둥근 소파, 나른한 햇빛과 공중을 떠다니는 먼지, 사서의 조용한 목소리를 추억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게임하다 불려나온
토스트엡스키 Toastoevsky

무명 학자의 첫 번째 기록

The first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칼라 Kalät

그곳은 마법과 신화의 땅. 누군가 칼라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한때는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설명했다. 하늘의 모든 별들로부터 축복받은 황금 도시. 아름다움을 한번 이라도 눈에 담은 이들은 모두가 꿈꾸며 외쳤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세상 모든 곳이 이곳과 같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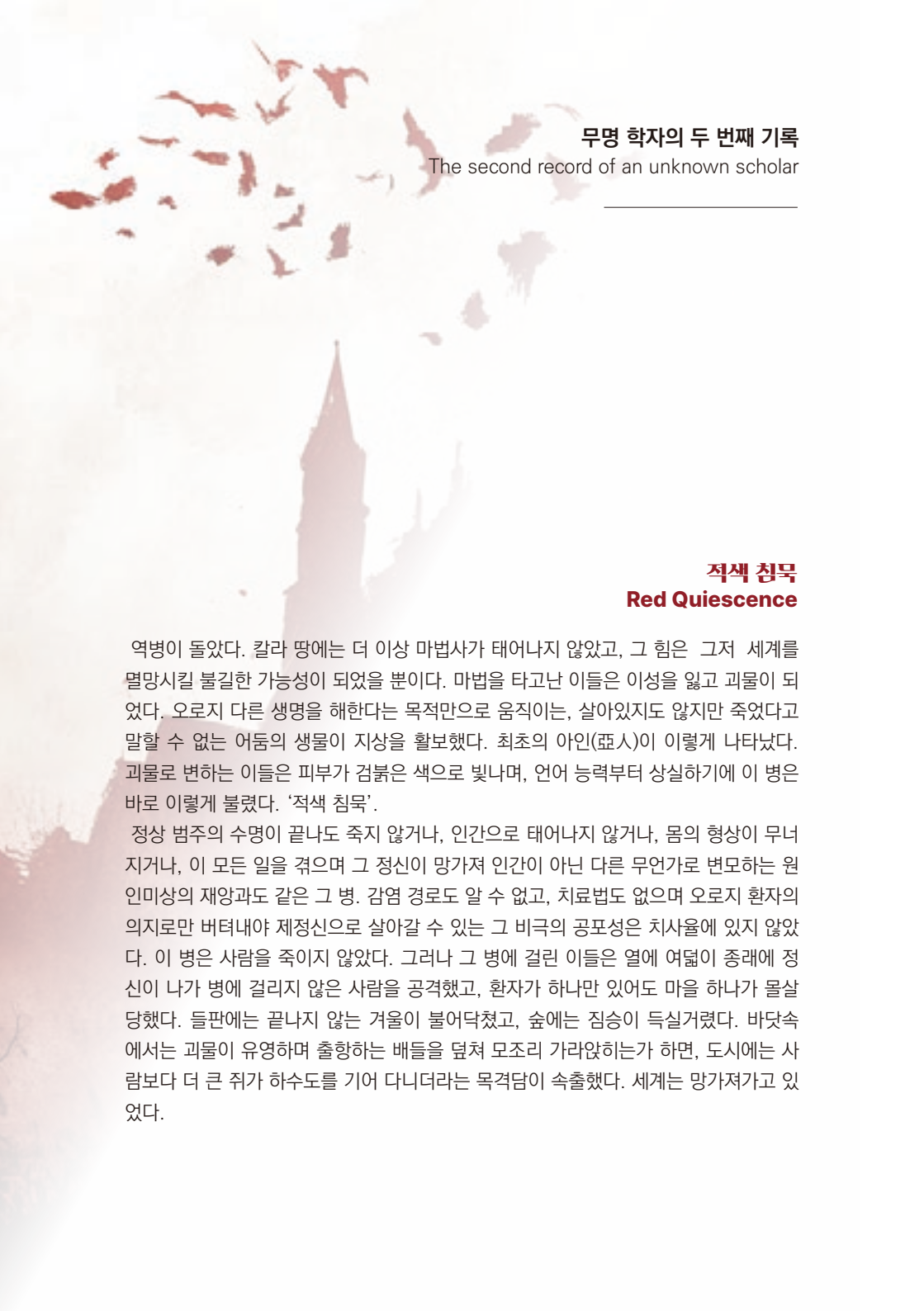
그 시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다. 칼라는 태곳적부터 이어진 최초의 나라, 신화의 땅. 영웅들의 가호가 서린 영광의 도시는 당대 모든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아직 이 땅에 마법이 있던 옛 시절부터 칼라는 북부의 맹주이자, 동토(凍土)의 주인이었으며 고요한 겨울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자랑했다. 세상 만물의 지식이 이 땅에 모여,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도시에서는 예술과 학문이 꽃을 피우며, 항구에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오가고 온 나라의 말로 대화하니 그곳이 바로 세계이자, 세계가 바로 칼라였다

허나 이야기는 한때 그러했다는 회상으로 막을 내린다.

지금의 칼라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수식어였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회상하던 황금기의 역사였다. 마법은 쇠퇴한 지 오래, 이 시대에는 단지 계승되는 기적이라 불리는 이능(異能)만이 일부 이 땅에 남아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알려주고 있었다.







무명 학자의 두 번째 기록

The second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적색 침묵 Red Quiescence

역병이 돌았다. 칼라 땅에는 더 이상 마법사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 힘은 그저 세계를 멸망시킬 불길한 가능성이 되었을 뿐이다. 마법을 타고난 이들은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되었다. 오로지 다른 생명을 해한다는 목적만으로 움직이는, 살아있지도 않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생물이 지상을 활보했다. 최초의 아인(亞人)이 이렇게 나타났다. 괴물로 변하는 이들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빛나며, 언어 능력부터 상실하기에 이 병은 바로 이렇게 불렸다. ‘적색 침묵’.

정상 범주의 수명이 끝나도 죽지 않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거나, 몸의 형상이 무너지거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그 정신이 망가져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모하는 원 인미상의 재앙과도 같은 그 병. 감염 경로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으며 오로지 환자의 의지만으로 버텨내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극의 공포성은 치사율에 있지 않았다. 이 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이들은 열에 여덟이 종래에 정신이 나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공격했고, 환자가 하나만 있어도 마을 하나가 몰살 당했다. 들판에는 끝나지 않는 겨울이 불어닥쳤고, 숲에는 짐승이 득실거렸다. 바닷속에서는 괴물이 유영하며 출항하는 배들을 덮쳐 모조리 가라앉히는가 하면, 도시에는 사람보다 더 큰 쥐가 하수도를 기어 다니더라는 목격담이 속출했다. 세계는 망가져가고 있었다.



Σκυγγερ, βεγραυερ στερνενε ι ευιγ ναττ
그림자는 별들을 영원한 밤에 묻노라

목차

자고로, 모든 이야기는 함께 걸어나가는 편이 좋다.

#Record :: 추천사	6
----------------	---

—무명 학자의 기록	8
------------	---

Prologue :: 10년 전의 기록	16
-----------------------	----

Chapter 1. 형제

1. 알리키 무어의 경우	25
---------------	----

2. 아서 무어의 경우	37
--------------	----

—락테아 아카데미	50
-----------	----

Chapter 2. 귀향길

3.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에	56
------------------	----

4. 침묵하는 비명소리에 대해	75
------------------	----

—기사단	106
------	-----

Chapter 3. 안부 인사

5. 재회는 평화롭게	112
-------------	-----

6. 야간 활동	155
----------	-----

—서대록	166
------	-----

Chapter 4. 천문대

7. 오만불손한 천재 173

—고대 문명 188

#Record :: 무명 작가의 후기 192



:: Prologue ::



이는 10년 전의 이야기이다.

마법과 신화의 땅.

누군가 칼라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한때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설명했다.
칼라는 태곳적부터 이어진 최초의 나라, 신화의 땅. 영웅들의 가호가 서린 영광의 도시는 당대 모든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아직 이 땅에 마법이 있던 옛 시절부터 칼라는 북부의 맹주이자, 동토(凍土)의 주인이었으며 고요한 겨울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자랑했다. 도시에서는 예술과 학문이 꽃을 피우며 항구에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오가며 온 나라의 말로 대화하니 활기참이 끊이지 않는 나라임이 틀림없었다고-

한때는 그러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현재의 칼라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수식어였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회상하던 황금기의 역사였다. 마법은 쇠퇴한 지 오래. 이

시대에는 단지 계승되는 기적이라 불리는 이능(異能)만이 일부 이 땅에 남아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알려주고 있었다.

칼라 땅에는 천 년 전부터 마법사가 태어나지 않았다. 있던 마법사들도 모조리 힘을 잃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병에 걸려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되어, 그들은 죄다 사람을 위협하는 힘으로만 마법을 썼을 뿐이다.

최초의 아인(亞人)이 이렇게 나타났다.

오로지 다른 생명을 해한다는 목적만으로 움직이는, 살아있지도 않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생물이 지상을 활보했다. 그 당시의 아인은 평범한 인간이 사냥할 수 없고, 오로지 교회에서 계승되는 이능의 기적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최초의 아인을 사냥한 뒤 교회는 발표했다. 마법사는 이단이며, 그 족속을 칼라 땅에서 뿌리 뽑아야만 영광스러운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 말이다.

군중은 그 말을 믿었다. 마법사들이 괴물이 된 뒤로부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탓이었다. 이제는 마법사뿐만 아니라 아무 힘 없는 사람들도 괴물로 변해갔다. 들판에는 끝나지 않는 겨울이 불어닥쳤고, 숲에는 짐승이 득실거렸다. 바닷속에서는 괴물이 유영하며 출항하는 배들을 덮쳐 모조리 가라앉히는가 하면, 도시에는 사람보다 더 큰 쥐가 하수도를 기어다니더라는 목격담이 속출했다.

천 년을 반복해 온 역사였다. 인간은 천 년째 전쟁 중이었고, 때때로 그에 지치면 마법사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다. 그들이 진짜로 마법을 쓰는 사람이 맞거나, 아니거나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굴레를 만들어낸 것은 마법사였고, 그들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주로 고아, 과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 혹은 숙적에게 공격받는 정치인들.

“우와.”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어린애가 검은 옷으로 온몸을 두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마법사예요?”

정작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주 불쾌하다는 시선으로 어린애를 숙 훑어보았지만 말이다.

풀밭에 누워 있던 그 여자는 허리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는데, 이 지역에서 본 적은 없는 얼굴이었다. 꼬맹이는 낯선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 듯, 배에 양손을 올리고 햇볕을 쬔던 여자 머리 옆에 쭈그려 앉더니 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처음 봐.”

“가라, 꼬맹이.”

“앵, 하지만 여긴 내 자리인데.”

“뭐?”

“전 맨날 여기서 잔단 말이에요.”

여자가 귀찮다는 얼굴로 그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자 꼬맹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왼손에 쥐고 있던 목동 지팡이를 크게 흔들었다. 끝에 달려 있던 종이 딸랑거리자 저 먼 곳에서부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키자 꼬맹이 옆에서 계속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를 세우고 있는 목양견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가 푸른 눈을 매섭게 찌려보자 꼬리를 내리더니 소년의 뒤로 피하는 꼴이 아직 어린 것 같았다. 그는 풀잎이 붙은 머리카락을 대충 벉벉 긁어 빗었다. 어린애는 하품을 쩍 하고는 먼 풀밭에 있는 양떼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개가 쾅 하고 짖더니 재빠르게 멀리 뛰쳐나갔다. 꼬맹이는 그러더니 다시 물었다.

“마법사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은 옷도 입었고, 음. 수상하니까?”

“왜 수상한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린애는 무슨 소리냐는 듯 여자의 배 위에 올려져 있던 오른손을 끌어당겼다.

“어제는 엄청나게 다쳐 있었으니까요.”

굳은살이며 작은 흉터가 잔뜩 박여 있지만 흰 손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여자는 ‘다쳤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의외라는 투로 자신의 손을 그 고사리같은 어린애의 손에서 빼내고는 물었다.

“네가 나를 치료했어?”

“그럼요. 말했잖아요. 여긴 제 자리라고.”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럼 나 개구리로 변신시킬 거예요?”

“.....”

어린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모습도 딱히 상대를 두려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으므로, 여자는 아무래도 첫인상을 잘못 만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친 상태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만만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제는 말끔하게 다 나은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다. 확실히, 평소보다 더 괜찮은 느낌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나왔다.

때때로 마법사가 나타나고는 했다- 아주 가끔, 마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단지 전설로만 치부될 즈음에 한두 명씩. 꼬맹이는 호기심 넘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의 이 여자는 길 잃었을 뿐인 기적을 쓰는 교회의 기사인가, 아니면 진짜로 마법사인가?

그러나 그는 대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꼬맹아, 너 이름 뭐야?”

“그런 건 보통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누아.”

“이름이 검정색이에요?”

“어쩌라고.”

“어른이 전혀 어른스럽지 못한데! 아무튼, 좋아요.”

어린애는 악수라도 청하는 듯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바이네.”

그리고 무언가 잊었다는 듯 덧붙였다.

“아! 발타의 바이네. 바이네 일마타йка. 이렇게 소개하는거 맞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개할 일이 없으니까.”

“.....”

“누아?”

“.....음, 좋은 이름이군.”

“악.”

누아는 꼬맹이의 머리를 거의 땅에 닿을 듯 누르며 쓰다듬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야.”

‘좋은 이름’이라는 평과는 상충되는 표정이 무섭게 꼬마의 뒤통수에 내리쬘었다. 누아는 꼬맹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금발 머리에 풀잎 같은 초록색 눈. 아무런 특징 없는 시골 꼬맹이는 누아가 떨어뜨린 세공된 은 지팡이가 신기한 듯 들고 구경하고 있었다.

“야, 꼬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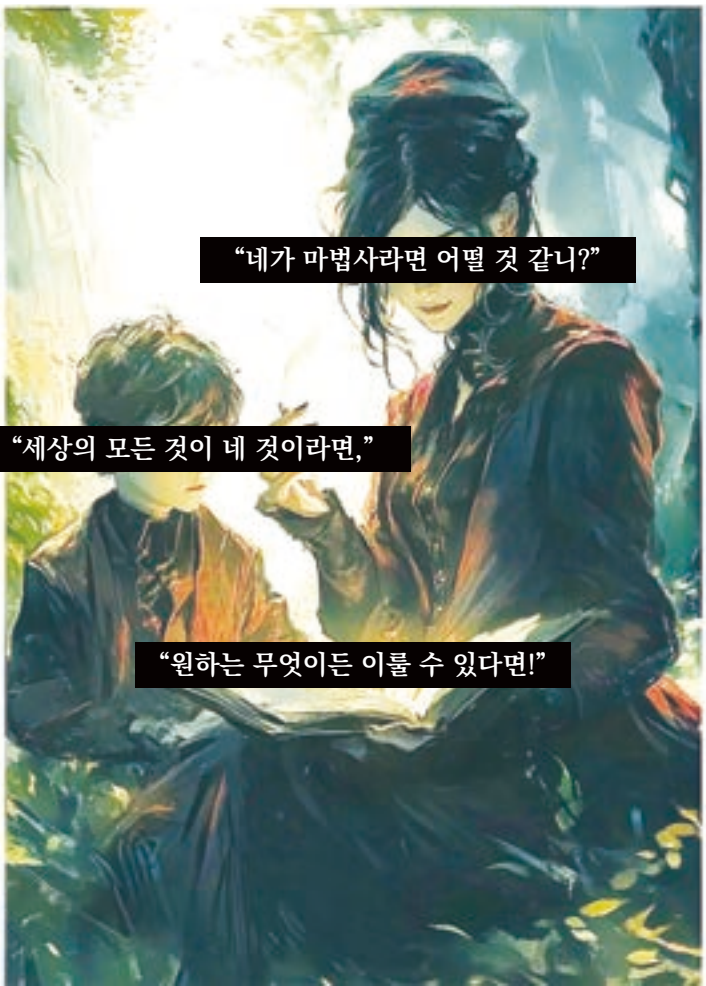
“네?”

“너 말이야.”

바이네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린애는 그가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머리카락이 망가진다고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누아는 그 정도의 꼬

마가 자신이 무슨 이름을 잃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도 그랬다. 그것은 이미 역사서에서 사라진 지 오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웅의 이름이자…… 최후의 마법사라 불리던 학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누아는 알고 있었다, 마법사니까. 그리고 그는 실력이 꽤 좋았고- 이 꼬마가 마법사가 아니라도 분명히 가능성을 품은 원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네가 마법사라면 어떨 것 같니?”

“세상의 모든 것이 네 것이라면,”

“원하는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면!”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가끔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I . 형제



꽃 사세요!

갓 수확한 아름다운 장미랍니다.

장신구요!

서대륙에서 가져온 세공품이지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래들이 배를 전부 박살냈으니까!

1. 알리키 무어의 경우

대륙의 최서단에 위치한 항구도시, ‘알타’의 다른 이름은 고래의 입이었다.

서대륙과의 무역을 위해 계획된 도시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리라 선언되었으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던 고래가 사라지고 고래 형상을 한 검은색 괴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범선 열 척이 출항한다면 세 척은 공격을 받아 가라앉고, 네 척만이 무사히 돌아오며 두 척은 돌아오는 걸 포기하고 서녘에 눌러앉으며, 한 척은 도망치다 무풍지대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했다.

알타는 돈방석에 앉아 활기찬 상인들의 천국이자 물귀신들을 찾아 헤메는 암울한 유족들의 지옥이었다. 그러니 고래의 입이라 함은 과언이 아니

었다. 목숨을 건 항해로 연명하는 도시는 결국 그 피의 값이 매겨짐에 따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다. 선원들은 황금을 꿈꾸며 계속해서 바다에 스스로를 밀어넣으니 낚선 고래들 또한 살이 올랐고, 때때로 해안가에는 주인 없는 모자들이 떠내려 왔다.

알리키 무어는 부조리한 양면성의 도시에서 뜻하지 않게도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 큰 도시에서도 몇 안되는 의사 중 하나였다. 크고 작은 환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으니 부품과 약재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일거리가 부족할 일은 절대 없었다. 게다가 돌팔이에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미치광이(무어가 보기에 그들은 미치광이가 맞았다)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사고도 낸 적 없고, 그 부모님도 칼라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다는 의사였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언제 창문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모양새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때때로 무어 선생은 오토마톤(*자동기계)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고, 시간이 조금 뜨나 싶으면 선원들이 다 불어터진 반 시체를 짊어지고 문을 부수다시피 열고 들어닥쳤다.

바로 오늘도 그런 하루였다.

“의사 선생, 이 빌어먹을 것 좀 살려줘!”

“나가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리키는 또다시 떨어져 나간 경첩에 한숨을 쉬고 진료실 바깥으로 나갔다. 뱃사람들의 술담배에 찌들은 소금기 냄새는 몇 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을 앓아 그는 오늘도 ‘실력은 좋은데 표정이 더러운 의사 선생’이라는 평가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있었다.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제 저녁에 돌아왔다던 선장이 머리를 크게 다친 듯 뒤통수에서부터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앓된 선원을 부축하고 서 있었다. 알리키는 빠르게

소년을 바닥으로 내려 눕히고 닫힌 눈꺼풀을 들어 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팏줄이 죄 터지긴 했지만 녹색 눈동자는 빛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알리키는 한숨을 쉬고 소년을 한 팔에 들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천장이 낮은 탓에 한껏 웅크리고 들어오는 선장의 꼴이 제법 볼만했으나, 그런 사소한 것들을 굳이 짚고 넘어갈 시간은 없었다. 그는 찬장에서 연고를 찾아 뒤적이며 물었다.

“뇌진탕은 없는데. 넘어졌어요?”

선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알리키의 생각보다는 느긋한 모습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안도가 들었던지 조금 전보다는 침착해진 모양이었다.

“책상 모서리에 박은 것 같던데. 방금 배에 가 보니까 선장실에서 이려고 쓰러져 있지 뭐가.”

“한 시간도 안 된 모양인데. 왜 거기 있었대요?”

“뭐 가져오라고 시켰거든. 이번에 아집카에서 가져온 것 중에 따로 빼둔 게 있어서.”

“흠.”

뭐, 그렇겠지.

알타의 선장들은 항만청에 보고한 항목들 외에도 개인적인 조달 의뢰를 받아주고는 했다. 알리키 역시 호기심에 몇 번 서대륙에서 약초로 쓰는 식물 모종을 가져다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으나…… 재수가 없으려니 모조리 침몰된 탓에 한 번도 본전은 챙긴 적이 없었다.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이 첫 항해인 초짜들이었고. 반면 이 사람은 알타가 개항한 이래 10년동안 서대륙에 6번을 무사히 항해한 베테랑이었고 말이다. 오늘 선장이 데리고 온 환자는 지난 항해 직전에 뽑은 견습 선원이었다.

알리키는 소년의 머리에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고 선장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선장이 누워 있는 견습 선원의 성한 머리를 쓰다듬자 갈색

더벅머리는 인상을 쓰고 자면서도 불편한 신음을 냈다. 알리키는 둘이 꼭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 두고 가지죠. 심각한 건 아니래도 머리를 다쳤으면 좀 봐야겠군요.”

“어째 친절하군? 전에 내가 술병에 머리 깨졌을 때는 집에나 가라더니.”

그러자 알리키는 무슨 소리 하나는 듯 눈썹을 치켜들었다.

“그야 애는 영감님이 선장을 달 짬에 태어났으니까?”

“그건 그렇지.”

“그리고 아무래도 매번 싸움이나 걸고 다니는 사람 밑에서 견습하는 어린 애가 좀 불쌍하죠?”

“예이, 예.”

한 마디로 나잇값 좀 하라는 뜻이다. 선장이 다시 킬킬거리자 알리키는 한숨을 쉬고 노트를 펼쳤다. 증상을 써 내려가다 말고 그는 환자의 신상을 전혀 적어두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피곤하면 꼭 이런다니까! 이 시간에는 간호사도 퇴근하는 터라 그가 종종 하는 실수를 짚어줄 사람이 없어서, 때때로 병원에는 유명 환자가 다녀가곤 했다. 치료도 했고 돈도 받았는데 신상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환자 말이다.

“그리고 보니, 환자 이름이 뭐죠?”

“아, 애 말이지. 우리는 아티라고 부르는데, 본명은 아르투리.”

알리키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들고 소년을 빤히 바라보았다.

“제 동생이랑 같네요. 개는 아서라 하고, 아르투르.”

“그래? 그럼 친동생처럼 봐 달라고 부탁해도 되겠지?”

“그럼요. 그 걱정은 마시고,”

그리고 알리키는 뒷걸음질로 진료실에서 빠져나가는 선장을 향해 경고하듯 손가락을 흔들었다.

“폐 먹을 생각 말고 진료비는 5만 마르카예요.”

“바가지 아냐?! 술 60병 값이라고.”

“술만 60병 마시려고? 지난번에 똑바로 안 내서 이자 붙었어요.”

“삼천 마르카. 거기에 사탕수수 1파운드 줄게. 어때?”

“배에서 단내가 진동하던데 선심 좀 쓰죠? 오천 마르카에 사탕수수 5파운드.”

“이거 순 도둑놈 다 보겠네. 오천 마르카에 사탕수수 2파운드.”

“오천 마르카에 사탕수수 4파운드.”

먼저 항복한 쪽은 선장이었다. 그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들었다.

“알았다, 그래! 오천 마르카에 사탕수수 3파운드. 됐지?”

“이튼 파운드 말고 칼라 파운드로. 알죠?”

“어린 놈의 자식이 머리만 잘 돌아가서.”

툭툭거리며 선장이 병원을 나가자-“너 문 좀 손봐야겠더라.” 당신이 오기 전까진 아주 멀쩡했거든! 알리키는 버럭 소리를 쳤고 선장은 휘파람을 불며 떠나버렸다-알리키는 마당으로 나가 오늘 하루종일 확인도 못 해 쌓여있던 우편 몇 개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다.

대부분은 병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주는 거래처에서 온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번 달 물량은 전달 대비 줄어들 것 같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히.”

알리키는 편지를 읽다 말고 커튼 틈새로 보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10년 전부터였다.

Mr Moore.

För följande 12 beställda artiklar, produktionso-
mrådet för artiklarna, Papoos-Alta, På grund av att
handelsvägar är blockerade på grund av den "röda
tystnaden" störs utbudet.

무어 선생님.

주문하신 이하 12개의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산지인 파푸스-알타 간
교역로가 '적색 침묵'으로 인해 봉쇄되어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관계로
납품량이 다음과 같이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차액 환불을 위해 칼라 중앙
은행 수표를 동봉드리오니.....

Vi vill informera dig om att leveranskvantiteten
kommer att ändras enligt följande. Färg för återet-
alning av skillnaden Jag bifogar en centralban-
kscheck... ..

칼라 왕국과 북부 라파 대공국에서 아인화병(亞人化病)에 걸린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감염된 이들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빛나며, 언어 능력부터 상실하기에 ‘적색 침묵’이라 불리는 천 년의 괴질.

정상 범주의 수명이 끝나도 죽지 않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거나, 몸의 형상이 무너지거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그 정신이 망가져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 ‘아인’이 되어가는 원인미상의 재앙과도 같은 그 병. 감염 경로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으며 오로지 환자의 의지로만 버텨내야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병의 공포성은 치사율에 있지 않았다. 이 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이들은 열에 여덟이 종래에 정신이 나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공격했고, 환자가 하나만 있어도 마을을 하나가 몰살당했다. 알타의 ‘고래’가 바로 그것이였다. 적색 침묵에 걸린 고래 떼.

“당분간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알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겠네.”

바깥이 아무리 위험해도 대도시들은 안전했다.

기사단이 있으니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적색 침묵 환자들은 아주 빠르게 진압될 수 있었다. 지난번에도 알리키가 환자로 봤던 빵집 주인이 적색 침묵에 걸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기사들이 아주 빠르게 제압해서 데려갔었다. 심지어 그들은 적색 침묵에 걸린 괴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니만큼, 알리키 무어는 제 동생이 무려 수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심될 수가 없었다. 이기적이게도, 알리키는 잠시 환자를 내려다보며 그나마 제가 동생 학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으면 개도 돈 벌겠다고 선원이 될지 누가 알겠나? 알타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를 제외하면 도심



만큼 안전한 곳이 따로 없었는데, 수도의 기사단들은 얼마나 훌륭하겠는가! 두 도시 사이의 교역로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기도 해서, 알리키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동생의 편지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우체국에 찾아가도 나이 지긋한 직원에게 대부분 듣는 소리는 ‘좋은 오후요, 알리키 선생. 수도에서 온 편지는 없고 당연히 영수증이 전부외다!’ 같은 것이 전부긴 했으나.

동생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 자신과 같이 지낼 때도 그다지 교우 관계가 원만한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난 몇 년간 친구들과 싸웠다면, 외출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하는 소식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알리키는 마지막 편지를 종이칼로 뜯어 열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동생에게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 아서 무어라는 이름이 그렇게 반가운 것은 또 처음인 듯했다.

“응?”

하지만 곧, 그는 펼치자마자 적혀 있는 단 한 문장에 아연실색했다.



학회 때문에 알타로 가는 중, 곧 봐.

“...이게 진짜.”

요컨대, 도시에는 그만큼 안전을 위한 병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바깥이 사실상 각자도생인- 이미 야생이라는 말이다. 알리키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전한 곳에서 오래 살면 뭐 하나? 하나 있는 가족이라는 게 자꾸 속을 썩이니 수명이 절로 줄었다…….

“야, 아서.”

“.....”

“아서!”

“음.”

“저녁 먹으라고. 다 끓었어.”

이름이 불리자 푸른 눈이 번쩍 뜨였다. 풀밭에 드러누워 있던 아서는 별떡 몸을 일으키다가- 썰기풀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엉키자 있는대로 짜증을 냈다. 여전히 잠에 취한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힐끗 보았고, 제 친구라는 것을 알자마자 평소의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 극적인 변화에 상대는 어이가 없는 듯 코를 흘쩍였다.

“왜, 뭐 꿈에 애인이라도 나오디?”

그 농담에 아서는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스카.”

“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이게 진짜.”

음. 꿈에서 저 말도 들은 것 같군.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풀밭에 드러누웠다. 이 좁고 황량한 북부 대륙에 누군가 여행길의 행운을 빌어 주기라도 한 듯, 모처럼 맑은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2. 아서 무어의 경우

그 길을 걸어 본 이들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사실 하나, 토벌되지 않은 아인 무리는 언제나 위험했다.

수도 세파에서 알타 항구 사이에 닦인 교역로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행자는 많지 않았다. 말 타고 적어도 일주일, 늦으면 이 주는 가야 하는 거리에서 소수 몇 명만 동행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런 길을 혼자서도 무사히 지나다닐 수 있는 건 교회의 기적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 뿐이었다. 개인은 제 몸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지.

규모가 있는 상단은 아예 용병을 고용했고, 소규모의 상인들은 길드끼리 뭉쳐다녔으며 여행자들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식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지 않으면 아예 출발 자체를 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기사단이 막고 있는 통행 제한 구역도 약간의 '정성'의 힘으로 열리기 때문

이다.

“고작 역참 두 개 남았는데 20만 마르카를 달라고?”

아서 무어의 여행 또한 그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 정도는 쥐야지, 세 명이잖나?”

“우린 세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5만 마르카도 안 썼어, 이 사기꾼아!”

말에 거의 앞드려 있던 아서는 10분째 단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던 길잡이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싫으면 혼자 가라고. 지금까지 잘 왔다면서 사흘 남았는데 뭘 동행을 구하나?”

“근처에 무법자들 흔적이 있더군. 못 봤나?”

“그건 좋은 정보로군. 5만 마르카를 깎아 주면 어떻겠나?”

“하…… 이래서 장사꾼들이란.”

그래, 무법자들의 흔적만 없었더라면 아마 저렇게 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개인 여행은 자살 행위라는 것도 길잡이가 형편없으면 벌어지는 일이었다. 아서는 나홀이라는 시간을 단 세 명에서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위험에 빠진 적이 없었고 그건 길잡이가 이 일을 30년을 넘게 한 베테랑이었기 때문이다. 알타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밟는 동안에도 그는 이상한 낚새가 보이면 바로 방향을 틀었다. 게다가 그가 말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히 예술적이었으니, 아서는 친구와 함께 고작 학생 두 사람을 길잡이 하나만 붙여 사지로 내몰았다며 욕하다 말고 얄전히 그 뒤를 따랐다.

“10만 마르카밖에 낼 수 없네.”

“곤란한데. 그 쪽은 무장도 안 했잖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침 그를 바라보고 있던 단장의 시선이 옷으로 향하더니 무언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한 태

도로 바뀌었다. 지금 그가 걸치고 있는 건 락테아 아카데미의 교복 로브였다. 그리고 보통 이 시대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건, 대체로 사람 수만큼 방이 있는 집안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졌으므로……. 뭐, 이어질 말은 뻔하다. 아서는 코웃음을 쳤다.

“왜, ‘도련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배포가 없어서야.”

그럴 줄 알았지.

길잡이는 아서를 힐끗 쳐다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서는 어깨를 으쓱였다. 사이즈도 안 맞는 소매는 손목에서 한 뼨은 달랑 올라왔다. 그 안에 입고 있는 옷은 당연히 재질도, 색도 귀족의 것이 아닌 일반 대중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진 길잡이가 유리한 싸움이었다. 단장은 귀족 학생들이 여행을 가는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바가지를 씌운 것이고, 학회에 가는 중일 뿐인 평민 학생들은 그 바가지에 널 돈이 없었다.

“자네는 저 꼬질꼬질한 옷차림을 보고도 도련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나?”

“대학생이잖아?”

“추천 입학생이지. 평민들이라고.”

10분이 더 흘렀고, 여전히 의견은 좁혀지지 않자 마침내 길잡이는 아서 무어와 동행 중인 친구(오스카)에 대한 사연을 날조하기 시작했다.

저 형제(아서는 단장 눈에 띄지 않게 헛구역질 하는 시늉을 했다)는 일찍이 적색 침묵으로 부모님과 생이별하고서는 가엾게 여긴 교회 덕분에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그들을 찾아낸 친척이 편지를 보냈고 알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이미 죽고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어 그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곁들이자 아서는 마침내 박수를 칠 뻔했다.

“끝내주는군. 비센테 극단이 칼라의 초원에 간판 배우를 빼앗긴 게 분명



무명 학자의 세 번째 기록

The third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무법자

Outlaws

150년 전 오스골드 왕의 칙령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금으로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부류다. 이단, 반역자, 사형에 준하는 수준의 범죄자. 도시에서 추방된 이들은 대부분이 굶어 죽거나 아인 떼에게 잡아먹혀 죽음을 맞이하나,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은 무리를 형성했다. 사면을 받기 전까지는 그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도시로는 걸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은 오직 살아남는다는 일념으로만 움직인다. 살인과 약탈을 서슴지 않으니 칼라 땅을 여행하는 상단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인과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 도시 바깥을 다니는 중에 나무에 걸린 붉은 천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모든 짐을 버리고 떠나는 편이 좋다. 그것은 무법자들이 이 길을 다닌다는 증거이므로.

해.”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오스카는 분명 길잡이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는 걸 봤다고 맹세했다. 그 혼신의 연기에 감동한 건지 귀찮아진 건지, 좌우지간 단장은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알겠다고, 나 원!”

아서는 아마 단장이 무법자들이 근처에 있다면 빨리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큰 상단을 지금껏 낙오자 없이 무사히 데리고 오는 수완까지 있는 사람이 저런 신파에 속을리도 없거니와, 무법자들은 돈 되는 거라면 말까지 다 빼앗아버리고 사람은 죽이거나 맨몸으로 들판에 버려놓고 가는 걸로 유명했으니. 단장은 처음 그들에게 이번에는 동양 상인들에게서 아주 귀한 향신료를 가져왔다고 자랑했으니 특히 좋은 꼴은 못 볼 테고.

“12만 마르카. 그 밑으로는 안 돼.”

“좋아. 그 정도면 적당하군.”

“한 시간 뒤에 출발하니 알아서 준비하게. 말 먹일 물이 필요하다면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물이 있어.”

아서는 우물 쪽으로 향하는 길잡이에게 수통을 던져 주고는 말에서 내렸다.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 하라고 길잡이가 내리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다. 풀밭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다 무너지자 옆에서 오스카가 킁킁거렸다. 아서는 일으켜 세우는 팔을 잡고 한숨을 쉬었다. 앉아만 있었는데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넌 어떻게 이 짓거리를 방학마다 해?”

“그야 집에 가야 하니까.”

“난 그래서 집에 안 가잖아.”

“졸업하면 어찌려고 그래.”

“졸업하지 말까?”

“언제 미치나 했더니 드디어 미쳤군.”

오스카는 질색하며 혀를 내둘렀다. 아서는 나무 옆에 짐을 내려놓고 풀밭에 대충 담요를 깔아 앉았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가방을 뒤지다 아마 지금쯤이면 미리 알타의 집으로 보내줬던 편지는 도착했을 것이다. 아인 떼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칼라 전국으로 다 퍼졌으니, 형은 아마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거나 이미 기절 직전까지 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실 둘 다 아닌데다가 알리키 무어가 동생이 무사히 도착하리라 전제한 채 집 문을 여는 순간 쏟아부을 잔소리 목록을 적어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아서는 빠르게 깃펜을 놀렸다.

“아서, 네 건 얼마나 됐어?”

“25페이지 남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엔 더 걸린다. 지금 필요해?”

“당장은 괜찮은데, 단어 몇 개 불러줄 테니까 앞으로 그 단어 있는 내용 나오면 바로 불러줘.”

“음.”

“‘고래’, ‘물새’, ‘바다’.”

“흠.”

……이거, 해양생태학이 아니라 천문학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서는 잠깐 고개를 들고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 일에 열중한 오스카는 이제 안경까지 꺼내 쓰고 있었는데, 전날 아서에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며 악담을 듣던 멍한 얼굴 치고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뭐, 이유가 있겠지. 그는 한숨을

쉬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아서는 이 여행을 그다지 즐기고 있진 않았다.

그가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실은 둘째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다. 여행의 목적지는 알타 천문대에서는 50년 만에 처음 개최된다는 천문학회였고, 아서 무어의 전공은 어문학이었다.

불행할 만도 하다. 짜증을 참는지, 단순히 피곤한 것인지 양다문 입술은 아주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손가락은 책의 세 장도 넘기지 못했다.

—알타에서 학술회가 열려. 그곳에 미리 가 쫓으면 한다.

그야 당연히 아서의 머릿속에는 일주일 전, 천문학 교수와의 대화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 문학과인데요?’

‘하지만 고대어를 너만큼 능숙하게 쓰고 읽는 사람은 어딜 찾아봐도 없다는 걸 알지 않나.’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을 하는 아서에게 두꺼운 종이뭉치에 가까운 책 한 권을 건넸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휴면지에 잉크 얼룩과 때가 타긴 했어도, 처음 받았을 때 아서는 세월의 흔적을 모방한 사본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필체도 종이 재질도 과거의 것이 아니었다.

‘키츠 대학이 이번에 발견했다는 고서의 복원된 부분이야.’

‘왜 전체가 아니라?’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내용을 다 못 옮겼다더군. 문제는 복원된 부분도 해석이 틀 났다는 것이고- 다행인 점은 당분간 알타 천문대에 전체 사본이 비치되어 있다는 거지.’

마차에 실려 있는 아서가 읽고 있는 책이었고, 여정의 목적이었다.
‘그걸 번역해 줬으면 한다. 어렵다면 그냥 전부 배껴 써 와. 수도로 돌아오고 나서 해도 너보다 빠르게 읽어낼 학자는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아서는 다시 책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시간이 더 있으면…….’

마지막에 무슨 추가 과제가 더 있긴 했는데, 시간 없다고 하고 넘길 생각이었다. 아서는 머리에서 깔끔하게 지워 없애고 시선을 깔았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한 장 더 넘기며 일흔두 번째로 한숨을 쉬었고, 맞은편에서 아주 조용히 앉아 이해하지도 못할 수식을 중얼거리던 학생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한소리를 했다. 아서가 들을 리가 없지만.

“허…….”

“한숨 좀 그만 쉬어.”

“싫어.”

이제 저자는 드디어 오래전의 모든 학자에 대한 찬양을 끝내고는 그들의 무엇을 공격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주 장황하고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래서 과학책은 지루하다니까. 사회에 업적을 알리고 싶다면 첫 페이지부터 탄식이 쇄도할 난이도로 글을 쓴다. 대중이 장난인가? 생각하며 해석이 잘못된 부분을 접어 두던 중, 아서는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오스카의 더벅머리 뒤통수를 뺨히 노려보았다.

“생각해 보니 말이야,”

“생각하지 마.”

주로 말도 안 되는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짓는 얼굴과 화두였다. 오스카는 또 뭐냐는 듯 눈을 치켜뜨고 고개를 돌렸다.

“네가 고대어 성적만 좀 더 잘 나왔으면 내가 안 와도 됐을 거 아냐?”

“그럴 줄 알았어.”

오스카는 익숙하다는 듯 반박했다.

“닷새 동안 외국어 400장을 번역하는 건 고대인이 와도 못 할걸.”

“너는 일주일 내내 말도 안 되는 상형문자를 천 개씩 해독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네.”

“상형문자 해독은 네가 할 일이지. 그리고 수학에는 예외랄 게 없거든?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달라고 하던지.”

“왜 못 하지? 왼손으로 읽으면서 오른손으로 적으면 되잖아.”

“……그래, 잘나서 좋겠다.”

그리고 이내 침묵이 흐른다. 둘은 길잡이가 돌아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라고 다시 수통을 던져주기 전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에서 온갖 책과 종잇더미를 꺼내 펼쳐 읽고 있었고, 지나가던 상인과 동행인들은 그 광경이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지나쳐 갔다. 단장은 거짓말인 줄은 알았지만 값을 치르고 나니 아주 뻔뻔하기 이를데가 없다며 투덜거렸다. 주위에서 동행인들은 저 단장은 한 번 찌르기만 하고 흥정은 지지리도 할 줄 모른다며 소곤거렸으나 그들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와중에 아서는 다시 가방에 종잇더미를 쑤셔넣다가 바닥에 잉크 병 하나를 깨고 욱지거리를 했으며 단장은 그 꼴을 보고 확실히 귀족은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스카는 그 말을 듣고는 킬킬 웃다가- 문득 길잡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야, 아서.”

“왜.”

“블론 씨 말야.”

“블론이 누군데.”

뭐라고? 나흘 동안 같이 다닌 길잡이 이름도 못 외우는 친구를 보고 오스카는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할 말 없으면 일어나



하라며 투덜거리고 돌아서는 친구를 붙잡고 오스카는 똑바로 길잡이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 자식이 내 이름을 제대로 알긴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속으로 삼켰다. 그때 아서가 길잡이를 보고 한 감상은 단 하나였다. 음, 저 사람 이름이 블론이군. 아서는 오스카의 손가락이 똑바로 가리키고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길잡이의 목 뒤쪽으로 커다란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아서의 표정은 전혀 모르겠다는 투였다.

“평소랑 똑같잖아.”

“아니, 뭐랄까 말이야.”

“저 사람 이상할 정도로 햇볕에 약하니 말이야, 아마 또 화상 입은 거겠지. 걱정되면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던가.”

그리고, 아서는 투덜거리더니 할일이나 하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오스카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단순히 기우였거니 생각하기로 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상단의 긴 행렬은 수십가지의 복식이 뒤엉켜 수십가지의 언어로 말하니 꽤나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오스카는 한숨을 쉬고 말 위에 올라탔다. 앞으로 여행은 빠르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좋은 생각만 하기에다 시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불현듯 아서는 고개를 돌려 울창한 숲을 노려보았다. 새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땅을 걸어다니고 있으니,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날이 안 좋은데.”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앞으로 조금 걸어나갔다. 길잡이와 스쳐 지나가며 수통을 돌려받을 때, 아서는 그의 손끝을 유심히 보았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나치게 빨갛게 부어오른 채였다.





락테아 아카데미 Academeia of Lactaia

900년의 역사를 가진 칼라 왕립, 굴지의 세계 최고 교육기관. 세계 각지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한곳에 모인다. 입학할 자격, 즉 실력만을 증명한다면 그가 농노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왕족인지는 알 바가 아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파헤치고 생각하며 답을 도출하라.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학생들은 무슨 일이든 행함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비록 그 탐구심이 때로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더라도. 걸출한 추기경과 교황을 배출해낸 락테아 아카데미는 모순적이게도 이단 재판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스개소리로 ‘과제 내기 전에 이단심문관을 먼저 매수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좌우지간, 아무리 엄격한 규칙이 있다 한들 그 콧대 높은 자존심들을 꺾을 순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곳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돋보이는가?’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동경과 질투가 섞여 들어간 어조다. “그곳은 그야말로, 세계 모든 지식의 보고지 않나!”

학계에는 벌써 이들의 이름만 말해도 고개를 끄덕일 학생들이 있다. 천문학의 오스카 셀던, 연금학의 타티야나 노데, 법학의 이젤 숨, 종교학의 소피아, 그리고 문학의 아서 무어.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상당한 괴짜들이라는 것과 더불어, 같은 동아리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파사칼리아’라는 이름의 클럽은 실내악 동아리라는 명목으로 아카데미 가장 구석에 처박힌 음악실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연습곡이 흘러나온 적은 없으며 펜 사각이는 소리만 들려온다. 그야, 애초에 사사건건 귀찮게 구는 이단심문관들의 눈을 피해 공부하는 위장용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다. 3개월에 한 번, 클럽 성과 발표회 때 관객들은 ‘파사칼리아 5중주’라는 팀을 발견한 순간 차라리 잠들기를 택한다. 무엇을 기대하든, 악기에서 기대할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괴짜 가득한 학교에서, 아서 무어는 그중에서도 특출난 괴짜로 소문나 있다. 비단 이 성과주의 학교에서는 혀를 내두를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며, 입학 이래 행보는 하나같이 타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는 기상하지 않는다. 당연히 수업에는 전부 빠졌다. 점심이 조금 넘어 이미 식당은 배식이 끝난 무렵이 되어야 일어나서 빵만 씹어 삼킨 뒤 가방도 없이 손에 책 몇 권만 달랑 들고 나선다. 수업에 들어간다 해도 즐기 일쑤요, 맨정신으로 들은 적은 손에 꼽는다. 당연히 수업을 함께 듣는 모두가 그를 안다.아니, 모를 수도 있다. 워낙 조용해야 말이지.

하지만 적어도, 기말 시험이 끝나고 전교 석차가 뜨는 순간에 학교는 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락테아 아카데미의 전교생 가운데 졸업 후 연구자로서 이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것은 한 해에 고작 셋. 어떤 이가 그 반열에 들 수 있는지는— 바로 그를 보면 되겠다.



전과목에 만점을 휘날려 놓고, 전과목에 이단심문관에게 시정 공고를 받는 학생이 눈에 띄지 않을리란 만무하다. 그렇지 않은가?





II. 귀향길

때로 누군가, 이 탐구의 의미가 무엇이나 물으나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진리는 유구하다.
“저 하늘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며
선현의 글귀가 바로 우리의 뿌리이기에!”

3.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에

‘그리고 아서는 알타에 도착해서, 추적추적 비 내리는 땅에 내려서 하품을 했다’라고 모든 것을 생략해 끝낸다면 그야말로 성의없는 끝이 되리라는 것을 세상이 알기라도 하는지, 눈이 겨우 맺은 뒤에도 여행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그날 저녁부터 때 이른 눈이 내렸다.

그는 길잡이- 블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후미에 떨어져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본 그 사람 답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아서는 그쪽으로 걸으며 말했다. 오스카가 아무리 겁쟁이라 해도 있지도 않은 소리를 지어내는 성정도 아니었으니 못내 마음이 쓰인 모양이었다.

“뭐 이상한 거라도 있는지?”

“아르투르.”

“아서라 부르세요.”

노련한 길잡이는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옆 자리를 비

워주었다.

“단장이 잡지 않던가?”

“저를 왜 잡죠.”

“자네는 문학도니까. 가장 오래된 노래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전승이 있잖나.”

“그런 마법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랬으면 교회에 끌려가거나 했지.”

“상인이란 족속은 말야, 누구보다도 미신에 취약하지. 바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님이 안 와서 장사 풍치는 일이 허다하니 말이네.”

“일리가 있네요.”

아서는 한숨을 쉬고 길잡이에게 둘둘 말린 양피지 하나를 건넸다.

“받아요.”

“이게 뭐가?”

“여차할때 쓰라고 교수님이 준 것.”

길잡이는 그것을 가볍게 털어 펼쳤다. 종이에선 뜻도, 근본도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눈살을 찌푸리고 아서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설명을 요구하는 얼굴이었다.

아서가 그에게 내민 것은 교회에서 아주 가끔씩만 만들어내 적색 침묵의 유일한 완화제였다. 감염자에게 찢어 먹이면 적어도 1시간은 이성을 붙잡고 있게 해 준다는 기적의 산물. 성서의 한 장에 불과한 그 사치재는 구하려 해도 없으니 보게 된 그 자체가 기적이거나 다름없는 선물이었다.

“아마레 신화 마지막 장 내용인데요, ‘그리하여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마지막 인간이 눈을 감자 다시 최초의 인간이 눈을 떴다. 그는 맨발에 아로새겨진 싱그러운 풀의 감촉에 즐거워하며…….’”

“그거야 알아. 감사히 받겠네만,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바람이 불자 나부끼며 그의 목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붉은 반점과, 스카프 아래로 이미 썩어 떨어져 나간 살점 일부를 드러냈다. 아서는 한숨을 쉬었다. 실력 좋은 의사 형제를 두고 있으면 좋은 것은, 이것이 적색 침묵의 증상이며 길잡이가 이미 제법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알기 쉽다는 점이였다.

“얼마나 오래 됐나요?”

“.....이제 사흘인가.”

“무법자는 핑계였군요. 그냥 우리를 맡길 구실이 필요한 거지.”

아마 아서가 단장에게 가서 한 마디만 한다면 길잡이는 바로 맨몸으로 내쫓길 것이며, 의학 지식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긴 한 아서는 단번에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또한 그가 정의감 넘치는 의사의 동생인 탓이기도 했다.

아서는 한숨을 쉬고, 불론이 아직도 어정쩡하게 들고 있는 부적을 그의 가슴팍으로 밀어버렸다.

“우리보단 당신이 그걸 언제 써야할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만약 이 여행에서 쓸 일이 없더라도 말이죠.”

“내 병 때문에 자네들을 위험에 빠트릴 일은 없네.”

“하지만 피부 괴사까지 갔다면 이미 중증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제정신으로 계시죠?”

“듣기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말야, 뭐.....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

사라 불론.

길잡이는 못내 사랑스러운 듯 그 이름을 불렀다. 듣자하니 딸이였다. 아서와 마찬가지로 길잡이는 알타 출신이었고, 이번에 일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병에 걸렸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길잡이는 말했다.

“다음 주가 그 애 생일이거든.”

“아.”

“그래서 적어도 편지는 한 통 보내놓고 싶어서.”

아서는 그 길잡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

“.....”

침묵.

“.....좌우지간, 현명하게 쓰시리라 믿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요. 그 정도로 알타에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사실, 아서 무어는 알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어릴 때는 항구에서 매일같이 병원으로 실려 오는 환자들을 보는 것도 지겨웠는데,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성벽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성벽을 넘어갈라치면 곧바로 들리는 목숨을 잃을 거라는 협박,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자격을 증명하라는 압박. 형- 알리키가 의사로 꽤나 유명해지고 난 뒤와 아서 그 자신이 특별 학생으로 락테아에 뽑혀 간 이후로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아서는 아직 알타 성안으로 이주할 당시 보고 들었던 말들을 잊지 않은 탓이다.

—뭐야, 고아? 세금 낼 돈은 있고?

—내버려 뒹, 배에 타려나 보지.

—항구가 있어서 좋은 게 뭔지 알아? 시체 치울 일은 없다는 거야.

소년이라면 선망하는 기사단의 행진? 아, 그것도 아서는 단순히 군중을 홀릴 뿐인 촌극이라고 여겼다. 당대의 썩어빠진 교회에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그 부역자일 뿐이고, 그 칼은 군중이 아닌 부르주아만을 위해 싸울 것이 분명했으므로. 아서는 기사단이 자신과 오스카를 성안으로 들여보내 준 이유가, 오스카가 오스카 ‘세텔’이기 때문이리라고 확신했다. 지금은 거처를 옮겼고 오스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해도 현 세텔은, 알타 영주와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니 말이다.

그런 아서에게, 알타의 하늘?

“아, 최악이다.”

“왜 그러나?”

“가족이란 뭘까요. 왜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야 하지?”

“.....”

“숨만 붙어 있으면 그곳이 집이 될 수가 없나.....”

아서 무어에게 알타란, 그저, 발버둥을 쳐도 계속 되돌아올 뿐인 빌어먹을 시작점이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서, 왔던 그대로 되돌아가며 눈발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다. 문득 그는 속으로 누군가 책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죽지 말라는 한마디 하기가 어려우니, 인간은 모든 말과 노래를 잃고 침묵하는, 노인조차 황금의 이야기 꺼내지 않는 이 시대에——.....

길잡이는 아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다 구겨진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여자아이의 초상화였고, 그는 그것을 눈발에 던져버렸다.

“고맙네.”



생일에는 오실 수 있나요?

엄마가 착하게 지내면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온댔어요.

저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근데 오빠가 그건 공주님들이나 먹는 거라던데.





한편, 아서가 떠난 곳도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궁전과 비견되는 회백색 건물에 푸른 지붕. 정문을 장식하는 황금 여신상과 사과나무— 그리고 그곳을 지나치는 수많은 학생들. 햇살 내리쬐는 잔디밭에는 책 읽는 이들이 가득하고 끊이지 않는 대화 소리. 모두 칼라 왕국 최고의 학술기관이자 지식의 보고, 락테아 아카데미를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누구나 다섯 걸음 안에 세계 각지의 엘리트들이 모여 저마다의 학식을 뽐내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대체로는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신학자와 연금학자가 모여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곳’.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언제나 토론과 낭독으로 시끌벅적한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이 많았으나 숨 막힐 정도로 고요했고, 유일한 소음이라고는 책 넘기는 종이의 마찰음과 책과 책장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 뿐이었다.

기이할 정도로.

락테아 아카데미, 아서와 오스카의 학교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한 달 가량을 학교를 비웠다가 금방 돌아왔거나, 이미 은퇴한 학자와 교수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보다도 정복을 입은 교수들이 더 눈에 띄는 까닭은 그들의 시커멓게 굳은 얼굴과 살벌하게 오가는 대화와 그 명성 때문이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하던 학생들은 그곳을 흘끔거리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상석에 앉아 있던 얼굴을 학생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총장을 몇 번이나 역임하고 지난해 은퇴한 파울 노먼 교수였다.

“Λα ρεῖγιον, εστις πυνιται, εσταντε καπιται, συρ λα ἐιελο κ
αη τρενιται, περ διυερσαη βεστοη…….”

“해석해 보면?”

“하늘여왕은 최초의 현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 세계수 가장 높은 곳
에 기거한다’.”

“금성이야. 세계수는 은하수를 말하고, 이는 고대인들이 섯별을 최초의
별로 여겨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으되 태양만큼 밝게 빛난다고 여겼지.”

이들 뒤에 알타로 출발 예정이었던 그들은 수십 개의 자료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한 얼굴에 약간의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천구의 진리」의 서문에서 저자는 금성의 신화적
의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군요.”

젊은 학자 하나가 경탄을 터뜨리며 낡아빠진 고문서와, 세상에 그 누구
도 알아볼 수 없을 법한 악필로 가득 채워진 양피지 하나를 들어올렸다.
고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금성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지도 않았으며 거
대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가장 밝은 별도 아니었다.

“별의 거리 계산이라!”

‘천문학’이라던가, 슬슬 포기할 법도 됐는데 건재한 ‘연금학’이라던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학문이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는 이유가 있었다. 이
것들은 소실되어 작금의 시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비밀을 파
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흔적만 남아 있는 고대의 역사, 그들의 믿기
지 않는 기술과 지식은 때때로 책과 오래된 건물 터의 형태로 현대 인류에
게 나타나곤 했다.

그러므로 이 학문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고대어를 가르쳤다.

새로 발견된 것들에 대해 지식을 가장 빠르게 습득해야만 기존에 세워진 가설과 오류를 고쳐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어는 사전이랄 것도 없으며, 구사자가 없으니 그 용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으며 때때로 그 문자들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곤 했으니 과정 자체는 해석이 아니라 해독의 경지였다. 현재 쓰는 말로 옮기고 난 뒤에도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된 자료를 사용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악명 높았다.

“그나저나 노먼 교수님, 이 해독법을 제안했다는…….”

“아서 무어.”

“예, 그 괴물 자식이요.”

젊은 학자는 악필 가득 채워진 양피지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혀를 내둘렀다.

“삼 년 전의 「아마레 신화」 전면 개역판이 그 놈 업적이잖습니까.”

“그래.”

“개가, 금성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 책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요.”

“…….”

“도망치지 않을 거라 믿으시나요?”

칼라 왕국은 아무리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다 해도 귀족과 성직자의 지위가 동등한 수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서 불어오는 개혁의 바람에 더 민감한 그들은 성서의 내용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다. 온건하면 파문, 재수가 없다면 반역죄를 물 수 있었다. 이 나라에서 왕은 금성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노먼 교수가 우려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어차피 교회에서 번역 허가는 났다. 아직 학생이고, 죄를 물어봤자 교내 징계로 끝나겠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놈은, 절대로 이런 기회를 그 손 놓고 보내줄 위인이 아니야.”

*

그렇다면, 당사자의 반응은 어떨까- 학생들은 궁금해했다.

그날, 상단이 멈춰 서 있던 밤사이, 칼라의 초원 야영지에서 모닥불 가까이 붙어 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서는- 어떤 문장을 들여다보더니, 아연한 표정이 되어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말했다.

“날 사지로 몰아넣는군, 아주…….”

하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다. 아서는 이미 그 새로운 책을 읽고 있는 자로서는 처음으로 책의 절반 분량을 독파한 뒤였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이 책은, 천문학 서적인 책을 하는…… 겉껍데기만 [천구의 진리]라는 책으로 뒤집어씌운 다른 책이었다.

아서는 책에 의도적일 정도로 오탈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는 책의 서문으로 돌아가서 틀린 철자들을 찾아 노트에 전부 적었다. 그리고, 한참을 조합했다. 한 시간을 그리고 있었을까, 그것들은 모든 오타자를 원래 철자로 교체하고 또다시 해석 작업을 거쳐야만 읽어낼 수 있는 정신나간 암호문이었다.

“Λα, μαλπερμεσιτα, καντο, ρευενις.……”

-이제 추방당한 이야기를 하자.

아서는 그 문자열을 중얼거렸다. 이중으로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

“Λα ρεῒνο μορτις εν σιλεντο.”

-여왕은 침묵하여 죽은 지 오래.

그리고, 그 뒤에서 두 인영이 아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눈으로.



Μυττα ταινας συλκεε σιλτι -άνεν νιμενσά
-그러나 하늘은 아직 그녀의 이름을 토하며

Ετσι υεσιπισαρα μερεστά
-바다로부터 물 한 방울을 찾는구나

무명 학자의 네 번째 기록

The fourth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하늘여왕 아마레

Amare the Queen of All Stars

칼라 왕국의 건국 설화 《아마레 신화》에 따르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세계수 노르다리스(Nordaris)이며, 그로부터 탄생한 최초의 생명이자 만물의 으뜸을 하늘여왕이라 부른다. 노르다리스 가지의 가장 높은 곳에 기거하며 이 세계를 굽어보는 여신은 칠색 머리칼에 금빛 눈을 가졌으며, 세상 그 모든 황금을 가져다 두어도 그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신은 노르다리스의 첫 번째 낙엽으로부터 태어난 최초의 인간과 사랑에 빠져 그 자손에게 축복을 내렸으니 그가 바로 칼라의 초대 왕이자 최초의 마법사, ‘일마라’다. 역대 칼라의 군주들을 ‘금성의 아들딸’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마법이 쇠퇴한 지금은 [기적]이 여신의 마지막 은총으로 여겨진다.

비록 현재 들어서는 그저 옛이야기일 뿐이지만, 발견되는 고대 문헌에 기반하여 추측하건대 그 전설은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모양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형이 되는 실존 인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상단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야 새벽녘에 겨우 출발했다.

“사흘 안에는 갈 줄 알았는데, 들판에서만 이틀을 썼네.”

“어쩔 수 없잖아. 죽는 것보다야 낫지.”

투덜거리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낙오자 하나 생기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별 군말 없이 따르고 있었다.

확실히 단장은 수완이 꽤 좋은 사람이었다. 어제 나왔던 부상자 옆에서 30분 가량 번역 중이던 고대어 책을 지껄여 주니 당연히 알아들을 리가 없는 환자는 피로에 지쳐 잠들었는데, 역시 그걸 마법적인 힘이라 여겼는지 효과가 좋다고 험 한 덩이까지 선물해 줬다. 그 정도로 만족하려 했더니, 사방에서 자기도 어디가 아프니 주문을 걸어 달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 아서는 결국 고함을 쳤다.

—의사한테 가라고요. 사혈이라도 하면 머리가 덜 아플지도 모르지요!

—그거 받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그런 건 알면서 마법은 믿는다고?!

어젯밤에는 새로운 동행자가 생겼는데, 그쪽 일행 길잡이는 그다지 일행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지 15만 마르카라는 금액을 흥정도 없이 그대로 지불했다. 알타로 여행을 가는 귀족인 눈치였는데, 평민들과 한데 묶여서 가야 한다는 점이 매우 못마땅한 듯했다. 종자 하나만 매우 분주하게 물을 뜨거나 상단에서 파는 물건 중 쓸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

그다지 마주칠 일은 없었으나, 한 번은 백작부인의 몸종이 와서 그에게

펜과 종이를 얻어가기도 했다. 그의 책 빼곡히 적혀 있는 고대어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끝이었다. 아서는 그들을 보며 오스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너네 집도 저러냐?”

그러자 오스카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이 되어 아서를 보았다.

“이거 진짜 무례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네.”

“왜, 1학년을 세 번이나 했던 도련님이잖아.”

“……가족 운이 좋냐 하면 그건 할 말 없긴 한데.”

천문학과와 오스카 세텔은 생긴 것은 단정하고 점잖은 도련님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으나, 교내에서의 평은 선량함과 별개로 괴짜에 가까웠다. 돈 많은 귀족 부모가 법학과에 넣어 줬더니 1년 뒤에 제 발로 걷어차고 신학과로 가 버리더니 그다음 학기에는 천문학과에 가질 않던가? 전과를 두 번 하면서 계속 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웃긴 일이지. 아서는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다. 오스카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또래 하인이 있기는 했어.”

“역시.”

“어, 근데 개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까지 같이 왔거든. 너도 알 겠.”

“이거 진짜 배가 아플 지경이군. 누군데?”

“타티야나.”

“……음.”

“내가 너도 알 거라고 했잖아.”

모를 리가 없지. 그 악명 높은 연금학과에서 5년째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말이다. 다방면으로 실력이 제법 좋아 교수진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에 자신의 연구 외에 일절

관심도 없는 아서 무어가 그를 알고 있는 이유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

언젠가 그 여자애가 재료 배합을 실수하여 술이 통째로 폭발해 교실 하나와 그 아래위 두 층을 날려먹었을 때, 그 아래층에서 아서가 일주일 밤낮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서는 최종 마침표를 찍던 와중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내리자 그대로 사흘을 앓아누웠다.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고. 아서는 아주 아련한 얼굴을 하고 얼굴을 쓸었다. 아무래도 더 이야기를 꺼내면 5시간쯤은 하소연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아 오스카는 입을 닫았다.

“까아아아악!!!”

침묵이 깨진 것은, 몇 시간 뒤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무리가 비명을 지르면서였다.

말 위에 앉아서 졸고 있던 아서는 눈을 번쩍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은 잠시 방황하다가 양 옆과 앞을 바라보았다. 흥분하거나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 안절부절못하는 말을 애써 진정시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뒷걸음질을 치거나 후미를 향해 도망을 쳤다. 아서는 의아하다는 듯 그 광경을 보다가, 코 끝에 걸리는 비릿한 향을 맡고 눈살을 찌푸렸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흩어진 기억들 가운데 나는 누구였던가?

무너진 육신의 틈새로 낮선 목소리가 속삭인다—

“마침내 길이 열렸다!”

“자유야, 자유!”

4. 침묵하는 비명소리에 대해

“끔찍하군.”

길잡이의 말에 아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역참이었다. 길잡이들이 말하기로, 알타의 입구나 다름없는 그 마을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갈대가 가득 자라니 바람이 불면 장관이라고 했으나- 그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갈대밭에는 잔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대만 남은 풀에는 피가 묻어있기도 했다. 마을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었다. 생활 중에 변을 당한 듯, 집집마다 탁자에는 식사하던 그릇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기름등의 불도 여전히 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경우,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아인(亞人)이다.”

적색 침묵. 마을 안에서 누군가 아인화병에 걸렸을 것이고, 제압할 틈도 없이 빠르게 번져나갔을 것이다. 상단은 마을의 꼴을 보고 탄식하다가, 역참 바로 앞에 모로 누워 있는 짐마차와 입에서 피거품을 흘리며 죽은 말들을 보고 질겁했다. 이 상단은 재수없게도 간밭의 차로 화를 당한 모양이었다.



비위가 좋아 조금 더 둘러보고 온 이들이 멀리서 외쳤다.

“아무도 없어. 흔적을 보니 이미 전부 먹혔거나 동화된 것 같소.”

“2시간도 안 된것 같은데.”

“……골치 아프군.”

짐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피 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이 모여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서의 길잡이는 혀를 차고 북서쪽을 바라보았다.

“코앞이 이 풀이 낮으면 알타 성문은 이미 봉쇄된 지 오래겠는데.”

“기사단이 주위에 있지 않겠나?”

“초원을 수습 번이나 다녀놓고 몰라? 그놈들은 성 밖에 사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

“귀족이 있잖아.”

상인들은 귀족 동행인이 타고 있는 마차를 바라보았다.

“작위는 뭔데, 들었어?”

“백작부인이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부딪혀 볼 만도 한데. 어때, 가서 물어 봐?”

시선이 쏟아지자 베일을 쓴 귀부인은 불쾌하다는 투로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렸다. 아서는 차라리 조금 순진할 정도로 착한 오스카에게 물어보는 편이 낫지 않은가 생각했다. 그야, 지금까지 본 귀족 가운데 평민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 지금도 심정이 어떨느냐고 물어보면 좋은 반응을 끌어내진 못할 텐데.

검은색 베일 뒤에서 그는 종자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더니 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달려나갔다.

어딜 가는 거지? 아서는 눈으로 시동의 뒤를 밟았다. 이 상황에 가장 동요할 법한 어린 아이가 제일 반응이 없는 것도 이상한데, 굳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상하다. 위험한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아서는 오

스카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팔꿈치를 밀었으나- 잡히는 것이 허공이니 눈살을 찌푸리며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뭐야, 어디 갔어?”

“아, 감사합니다. 부인.”

“.....야!”

어느새 백작부인의 마차 앞으로 가 있던 오스카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서가 소리쳐 부르자, 너도 오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재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담! 아서는 한숨을 푹 쉬고 걸었다. 책임자들은 여전히 행선지 경로를 정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언성을 높이고 지도를 펼친 채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저 성격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20분은 더 저러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심심한데 누군가의 말상대를 해줘도 나쁘진 않지. 평소면 거절하겠으나, 상대의 신분이 거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못내 신경쓰여 시동이 사라진 방향을 보았을 때, 아서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들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깐 눈을 깜빡였다. 방향을 잘못 봤나? 아니, 하지만 저 짐마차 뒤로 사라지는 걸 봤었는데. 그 뒤는-
“소년.”

백작부인의 톱톱 튀는 목소리가 저를 부르자 아서는 고개를 번쩍 들고 베일 쓴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쪽이 아르투르?”

“저를 부르셨습니까?”

“종이를 빌려준 것에 감사를 표하려고요. 고대 칼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쓰더군요?”

아서는 오스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설명하라는 눈이었다. 오스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주 간단하게 상대를 소개했다.



“오센 백작부인이야.”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은 친정집에 가는 중이죠.”

그게 누군데. 아무튼 귀족들은 이름만 말하면 누군지 다 아는 줄 안다고. 시장에 나가서 ‘여기 아서 무어가 있습니까?’ 외치면 몇 명이 뒤 돌아보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한쪽 눈썹만 들어올리고 애매하게 인사하자 백작부인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서는 그 소리가 마치 새 지저귀는 소리같다고 생각했다(칭찬은 아니었다).

“오호, 눈은 푸른 색이고 머리가 검은 색이군.”

“실례합니다?”

“그렇게 긴 머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종이에 흘러내릴텐데.”

“……실례합니다?”

“정말 다했어.”

백작부인은 아서를 관찰하는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다소 무례하게 비칠 수 있으나 그 신분이 항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마레 신화’ 개역판은 잘 읽었어요. 이전 판본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걸 꽤 괜찮더군요.”

“이전까지 오역이 좀 많긴 했지요.”

“평민치고 겸손하지 않아서 좋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는 아서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했다. 방금 대화에서 그를 재단하는 발언이 여럿 나오자 이미

심기가 뒤틀려 있던 아서는 한껏 불만스런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그 표정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오스카는 긴장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혹시 부계명이 어떻게 되죠?”

“몰라요, 부모님이 없어서.”

“미안해요, 좋지 않은 질문이었군요.”

“아뇨, 뭐.”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고전을 읽는 데서 흥미를 느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듯했으나, 아서는… 자신의 일이라던가, 신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다. 그 문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불려다녔는지!

“알타에 가는 이유는 천문학회 때문인지?”

“맞습니다. 혹시 그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 나는 항구로 가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음, 혹시-”

알타에 항구라고. 아서는 여기서 만날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 맞긴 한지 갑자기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아서 성격에 예의상 ‘무사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도 말이다, 당신이 뭘 아냐는 반응이 몇 번이나 돌아왔는지 그저 손만 흔들어 보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특히 앞바다에 아인화병에 걸린 고래 떼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 이후로는 더더욱 말이다.

“선원은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아직 살아있고.”

“아, 그렇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시 만날 사람이 학자인가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니고, 그 가족이 학자라고 듣긴 했는데 아마 학회에 간다면 만날지도 모르겠군요.”

“그 사람 이름이—”

“아서, 오스카! 어디 있지?”

갑자기 길잡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서와 오스카를 소리쳐 불렀다. 아서는 행렬 앞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빨리 이쪽으로 와!”

왜 저런담.

이름이 불린 둘은 조금 전, 어쩌면 곧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만날지도 모를 인맥 형성이 방해받은 것에 약간의 불만어린 표정을 했다. 2분 남짓 아주 짧은 시간 틈에 아서가 보여준 급격한 표정 변화가 재밌었는지, 백작부인은 베일 너머로 킁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곧, 이번에는 상단주가 지르는 비명에 그들은 일순 경직된 채 움직이지 못했다.

“서쪽에서 아인 떼가 온다!”

비명 소리가 들린다.

바람에는 썩은 고기와 비릿한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으며, 마치 안개가 몰려오는 듯 어두운 구름이 순식간에 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





무명 학자의 다섯 번째 기록

The fifth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명명 규칙

Naming Conventions

칼라에서 원래부터 성(姓)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500년 전 명명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집안의 이름,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여 총계 1개 이상 4개 이하의 이름을 가져야만 한다. 결혼할 때, 부부는 여성-남성 중 한 쪽의 집안 성을 따른다.

귀족들의 경우 '비센타 변경백'이라는 지위가 그대로 집안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비센티오'로 변화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평민들은 대체로 직업이나 지역의 특성, 혹은 원래 불리던 별명이 굳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령 이런 식이다. '오스카 린다스 셸던'이라는 이름은 '셸다의 영주, 린다의 아들 오스카'라는 뜻이며, '아서 무어'라는 이름은 '늪지대(Mor) 출신 아서'라는 의미다. 알타 지역은 전통적으로 호수와 늪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무어라는 성을 가진 평민 비율이 상당히 높다.

조금 전 상황을 보자면, 길잡이와 상인들은 알타로 가는 직선거리 최단 경로를 포기하기로 거의 의견을 좁힌 참이었다.

알타 대신 인근 소도시를 경유해 가는 길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쪽이면 재정비는 될 것이고, 기사단급은 아니더라도 습격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역참 마을을 습격한 것은 적어도 5두 이상의 아인 때, 용병들이 몇이나 있든 사상자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수가 아니었다. 처음 계산 대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싸게 먹혔다. 운이 좋으면 그 쪽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겠지. 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자신의 일행에게 돌아가 변경된 행선지를 말해 줄 채비를 했다.

아서의 길잡이, 블론을 제외하고.

그는 길잡이들이 해산하는 가운데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 쳤다.

“왜 그래?”

블론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살을 찌푸렸다. 코끝에 잡히는 냄새는 마율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퍼져 오고 있었다.

“바람이 이상해. 공기 중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평소 그의 기민함을 잘 알고 있던 주위 길잡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했다.

“아인인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

“모르겠어. 속도가 아주 빠르는데……. 잠깐, 설마.”

[키이이—…….]

블론은 무언가 찢어지도록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외치는 듯한 울림이었다. 일순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자 저만 느낀 것이 아닌 듯, 주위에 있던 다른 몇몇 이들 역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더 머뭇거릴 새도 없이 그는 아주 다급하게 아서와 오스카를 찾았다.

“아서, 오스카! 어디 갔어?”

어디로 갔지? 아까 전에 후미로 가는 걸 봤는데. 그는 당장 어디로든 피하지 않으면 곧, 죄다 사라진 이 마을 사람들처럼 손 쓸 새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오싹해진 기분으로 그는 있는 힘껏 둘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왜 부르는지 영문 모를 표정인 꼬맹이들이 ‘백작부인’의 마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소리는 멈출 기미도 없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는 왼쪽 관자놀이를 꺾꺾 누르며 고함을 질렀다.

“빨리 이쪽으로 와!”

“블론 씨?”

“서쪽에서 아인 떼가 온다!!!”

그는 있는 힘껏 내달려 꼬맹이들의 어깨를 붙들었다. 여전히 미동도 없이 마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백작부인을 보고 그는 그 와중에도 귀족이란 정말 어지간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당신도 얼른 피하라 한 소리를 하기도 전에, 갑자기 조용히 있던 아서가 양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나지막

히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쓰러지자 오스카의 비명에 가까운 부름이 들렸다.

“허억.”

[키이, 까드득. 까-가가가각…….]

“아서!”

“……나, 아무래도.”

아서는 길잡이의 팔에 붙잡혀 비틀거렸다. 길잡이의 정신 차리라는 걱정이 먼 곳에서 외치는 듯 뿌영게 들렸다. 짐승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아인들은 목소리가 없으나, 사람의 마음에 직접 소리를 질렀다. 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오스카와 길잡이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문득 스쳐 지나친 백작부인은 그를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잡이가 나지막히 물었다.

“……가, 들렸나?”

[딱, 딱딱딱. 까아아아- 히히.]

모든 사람이 아인의 듣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인이 직접 ‘말’을 걸어온 대상- 즉, 적색 침묵이 내는 목소리를 들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표적이 되었다.

즉, 먹잇감.

아인이 직접 먹이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순히 약한 사람이 잘못 걸린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다.

운이 좋은 경우 아인은 ‘먹잇감’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 통계적 수치는 결국 낙오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어, 걸을 수 있…… 요?”

“아서, 빨리 일…….”

이런 제기랄!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지. 아서는 쿵쿵 울려대는 머리를 붙잡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를 표적으로 삼은 아인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지, 시체 썩는 냄새가 머릿속을 가득 메우자 제가 시체맡에 있는지, 초원에 있는지 이제는 분간이 되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오스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아서의 한쪽 팔을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미 다른 무리에서는 벌써 머리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버리고 짐마차 안이나 역참 안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용병들은 그들의 앞을 지키면서도 긴장한 얼굴로 ‘표적’들을 바라보았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 줬으면 하는 표정들이었다. 오스카가 아서를 한번 더 흔들었다.

그때, 길잡이가 백작부인을 마차에서 끌어내리더니 세 사람을 땅으로 완전히 밀쳐 눕혔다.

“엎드려!!!”

“맙소사, 내 평생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백작부인, 귀족의 예절 지키다가 당신의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흥.”

고함을 지르자 백작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여기서 웃는다고? 오스카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아서의 어깨를 잡고 백작부인을 경악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아는 척을 해 올 때부터 독특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마치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 굴터니 신상을 캐듯 질문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아니, 슬슬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저 베일 뒤에 무슨 얼굴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오스카는 침을 꿀꺽 삼키고 길잡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믿을 만한 어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으아아아아!”

“우웬.”

침마차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용병의 머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오스카는 숨을 들이키고 입을 막았다.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죽었지? 온 사방이 아수라장이었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길잡이가 오스카와 아서의 몸을 더 끌어내려 낮추고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젠장, 조류형 아인이군. 정말 가지가지 다 해…….”

“블론 씨. 저것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스카는 ‘부리’로 추정되는 형상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소리에 창백한 안색으로 벌벌 떨며 손가락을 들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것들은 적어도 열 사람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독수리 형상의 어둡은 형체랄 것이 있지도 않고, 이상한 검은 액체를 하늘에서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맡아본 적도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백작부인은 그것을 보고는 중얼거렸다.

“동족포식자군. 저 정도로 말 하는 걸 보니 적어도 10두는 먹어치웠나 본



My father in heaven who is my father are my sons and daughters who are my sons and daughters, who are my sons and daughters who are my sons and daughters Let all those who have passed away have mercy and have peace let the name of my father shine, and God is great! There is no other God who is the prophet to God to protect them from all dangers Give your kingdom come send you a blessed and you have no other cause for prayer near as in heaven for the journey of life to overcome obstacles and to lead us from darkness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되어 오셔서 상을 띠면 본인이 가장 비로한 화의 안식을 할게 하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가득하시니 사탄은 위대하다 본인은 없다고 하는 신의 언어로 다자를 죽이는 것임도 아니시며 아버지 지니 내 몸이 머슴이니 기독하지 못하니 자비로우사 하여 예수의 믿음에도 이르러서 소스 다를 기도가 할 대상은 무엇으로 다할 의령이 모든 것을 독하게 하소서 그 모든 영의 바깥을 두어 주사 우리 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 하시며 믿는 자마다 이 영을 더욱 드리고 장중하게 인하여서 이제 주의 회복을 얻고 최적인 율을 위하여 벌여 주소서 주 모든 은우리를 지켜주소서



데.”

—히히, 응. 생일 축하해!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

“으아아악! 괴물이다, 사람 살려!”

“……젠장, 저 망할 놈.”

기어코 짐마차에 숨어 있다가 바깥을 내다 보던 단장이 비명을 지르자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단장을 움켜쥐고 날아가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다가, 이내 새가 짐 없이 돌아와 그들 머리 위를 부유하자 침도 삼키지 못하고 창백해졌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그들은 안전한 길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의 생존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길잡이는 칼을 뽑아 다시 한 번 사람을 물어 달아나는 새를 향해 던졌다. 독수리는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형체도 없이 어두운 액체로 땅에 흩어졌고, 방금 그 부리 아래서 살아나온 이가 질겁하더니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서는 독수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 몸을 일으켰으나, 잠깐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인화병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이미 육체의 본래 모습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린 형상은 무엇으로든 다시 변할 수 있었다.

[까드드득, 까아악. 딱딱, 키키이…….]

[이-이이이이. 드르르륵. 카아악!]

……독수리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다. 온 사방에서 정체불명의 목 소리와 짐승 우는 소리가 한데 섞여 들리던 것이다. 사람들은 웅크려 있거나 왔던 곳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자 길잡이는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달아날 수 있는 데까지는 도망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길잡이는 한숨을 쉬고 자신이 맡았던 두 소년의 어깨를 잡았다.

“무조건 북서쪽으로 달려라.”

“네?”

“알타로 바로 가야 해. 전속력으로 달리면 반나절만에 가겠지.”

“아니, 블론 씨는 어쩌려고요?”

“이 정도면 인근 소도시는 이미 쑥대밭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안전한 곳은 기사단이 있는 알타밖에 없다.”

“하지만…….”

“부인, 당신도요.”

백작부인은 길잡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과 같이 가시오. 백작부인이라면 무사히 알타 성문을 통과할 수 있을 테니요.”

“……날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거로군요?”

“당연하지, 내 의뢰인은 당신이 아니라 애들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같이 다니던 당신 종자는 어디 있소? 그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가시오.”

“…….”

백작부인은 아주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블론은 아주 엄하게 귀족에게 훈계하는 표정으로 동의를 요구했다.

“……부인?”

“하아, 내가 이래서 싫다고 했는데.”

“뭐요?”

“운 좋은 줄 아시오.”

그리고 백작부인은 영문 모를 소리를 하더니, 우아하게 일어나 치마폭을 장갑 낀 손으로 툭툭 털었다. 그녀의 시선은 들판을 향했는데, 이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산짐승과 아인 떼가 정확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백작부인’은 아서를 내려다보았다. 아서는 흥미한 정신 가운데 아마 그녀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반투명하게 비치는 베일 너머로 입꼬리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게 보였다.

“이건 순전히 그분이 이 소년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라오.”

“무슨…….”

일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백작부인에게서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위압감이 터져나왔다. 바람이 불자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머리칼이 보였다. 아서와 비슷한 철흑같은 흑발이었다. 뒤쪽으로 겁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그는 전혀 동요한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손으로는 말갈기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숨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백작부인은 입을 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누군가를 외쳐 불렀다.

“이스피!”

“불렀어?”

그러자 갑자기, 말 뒤쪽에서 머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오스카는 깜짝 놀라서 아서의 어깨를 꼭 쥐었고, 툭툭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스피’라 불린 여자는 아서나 오스카의 포대로 보였는데,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백발에 형형하게 빛나는 초록빛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백작부인은 말에게 기대 서 있는 이스피에게 말했다.



“정찰하고 왔니?”

“일대가 곧 쑥대밭이 될 거야. 우리로는
상대 못 해.”

“기사단은?”

“빨라도 2시간 거리.”

“네 [기적]으로 데려다줄 수 있겠어?”

이스피는 오스카와 아서를 아래위로 훑
어보고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응.”

아서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고 그를 있
는 힘껏 노려보았다.

“뭐라고?”

“말 그대로야. 너희를 알타 기사단에게
데려다줄게. 단, 너희 둘만이야. 저 사람
은 안 돼.”

“왜?”

이 꼴이 된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
는 것도 이상한데, 분명 들판으로 나가
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건 보지도 못했는
데 반대 방향에서 나왔다. 수상하지 않
나?

시선을 느꼈는지, 이스피는 오스카와
부축받고 있는 아서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고작 열네 살은 됐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금빛 눈은 즐

거운 듯 휘어졌다. 그의 오른쪽 눈가에는 문신인지, 마치 눈에서부터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듯 검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버릇인지 그는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쓸더니 입을 열었다.

“싫어? 그녀가 나에게 누군가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두 번은 안 올 귀한 기회일 텐데.”

“몸종이 어떻게 기적을 다루지?”

“무례하긴. 그녀와 나는 동등해. 그리고,”

이스피가 아서의 머리 옆으로 장대를 내질렀다.

“‘고작 몸종’은 이런 거 못 하지.”

순간 아서는 흠칫 숨을 들이쉬었다. 고개를 돌리면 기척도 없이 근처에 다가왔던 아인종 늑대가 눈이 뒤집혀진 채 쓰러져 있었다. 아연실색하여 바라보면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등불을 떨어뜨렸는지 갈대밭에서부터 불이 타올랐다.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며 불씨가 날아다니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올렸는데 그들은 이 불길 한가운데에서도 뜨겁지도 않은지 아랑곳하지 않고 서 있는, 젊다못해 어린 여자애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길잡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말한다면 민을 텐가?”

백작부인이 입을 열었다. 친절하던 말투는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도시가 없는 기사요.”

그녀는 칼을 빼내 들더니 보지도 않고, 등 뒤에서 덤벼드는 아인화 늑대를 향해 내리쳤다. 맑은 날씨, 아침. 눈발. 칼에서는 전격이 튀었고…….

순간 저릿함을 느낀 이들은 이것이 부정할 수도 없이 교회에서 선택받은 기사들에게 내리는 [기적]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들은 왜 구하지 않는가? 그들을 향해 살려 달라고 외치던 상인과 용병들이 짐승 아래에 깔려 사라졌는데, 백작부인과 이스피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투였다. 단지 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아서는 표적이 된 주제에 이상할 정도로 텅버드는 아인이 적었는데, 이것 또한 기적의 영향인지 그들로서는 알 노릇이 없었다. 이번에는 오스카가 말했다.

“그게 가능해요? 교회의 [기적]은 헌신을 맹세한 이들에게만 허락될 텐데.”

“믿지 않아도 네 눈앞에 있지.”

“마법사인 거 아냐?”

“사람 참 못 믿는군?”

아서는 눈을 억지로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주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오스카만이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었다. 아서는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귓가에는 여전히 적색 침묵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찢어질 것 같은 목으로도 결국 질문을 던졌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온갖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채였다.

—너. 너, 말이야. 있잖아. 너.

“우리 둘만 보내주려는 이유는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응?

“길잡이는 어떻게 되죠?”

—아, 이곳은 얼마나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저 상단과 동행했을 뿐인 일반인들은?”

“소년, 말이 너무 많아.”

이스피는 그 질문에 키득거렸다. 어느새 마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능청스럽게 산딸기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꺼내(어디서 난 거지?) 오스카에게 한 주먹 권하는 모습이란……. 백작부인은 그 녀에게 그만두라는 듯 손짓했다.

찰나 백작부인은 길잡이를 흘긋 바라보았는데, 그 뺨까지 붉은색 반점으로 잠식당한 것을 보고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꽤 오래 버틴 모양인데, 적색 침묵의 지나치게 짙은 농도로 인해 더 이상 언제 변이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다.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자 베일 너머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듯, 그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뭐든 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이건 순전한 우리의 자비야, 표적이 된 소년.”

“왜요?”

백작부인은 아서에게 대답했다.

“제법 마음에 들었거든. 짧은 인연을 귀히 여기는 너희들의 삶.”

“무슨…….”

“이스피, 더 이상 시간 없어!”

“으응. 잠깐만.”

이스피가 그들의 손을 붙잡았다.

오스카는 그들보다 못해도 다섯 살은 더 어릴 여자에 손이 거의 사포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다. 깃펜 모양대로 굳은살이 박인 그들 것과는 대조적이게도.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어린아이는 빙긋 웃으며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동정하는 그들을 되려 동정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주문을 외듯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서 무어는 멀어지는 정신 가운데서도 그게, 아주 완벽한 발음의 고대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Αλφροντυ Fiv, κας νε τιμυ.”

-가거라, 너의…… 로.

아서 무어는 멀어지는 정신 가운데서도, 저 말은 고대어임이 분명하다 생각했다.

“Λοκο πορ μαλστρεξιγι, φαμα ηεσμο, φαμιλιο…….”

-삶이…… 장소의, 이제는…… 망각하여…….

그러나 생각에 그친 이유는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목소리가 끊어졌을 때, 눈이 멀 듯한 밝은 빛이 땅을 뒤덮자 아서와 오스카는 눈을 감았다. 아서는 생각했다. 내가 듣

고 모르는 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건 대체 무슨 말이지? 고대어가 맞기는 한가? 아니라면, 그 체계를 이용할 뿐인 아예 다른 언어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책이 들어있던 가방 두 개와 함께 밤이 된 들판에 누워 있었다. 마치, 일주일 새 일어난 그 모든 일이 꿈이었기라도 한 것처럼.

“여긴…….”

오스카가 먼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북서쪽에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이 점처럼 보이고 있었다.

“알타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알타에 도착했다. 일주일을 달려도 사건만 생기고, 전혀 도착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리를 눈 감았다 뜨니 도착해 있었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었다. 여전히 땅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한결 편해진 얼굴을 한 아서의 팔을 어깨에 둘러 부축하고 그는 무작정 걸었다.



빛과 함께 소년들이 사라지자, 마지막으로 길잡이가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며 의심했다.

“……당신들은, 라파 대공의 기사로군.”

그는 긴장이 풀린 듯, 아인 무리 한가운데서 주저앉았다. 아인화병에 걸려 이미 붉게 변하고 있는 ‘인간’을, 괴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백작 부인은 몸을 뒹 돌려 그의 시선에 몸을 숙였다. 그 위압적인 태도에도 길잡이는 물러서지 않고 마주 바라보았다.

“너, 우리를 아는구나.”

—도시가 없는 기사.

수많은 고서에 등장하는 은어로 무법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부르는 노상강도와는 다른 이들이었다. 보통 세간에서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라파 대공국의 초원을 떠돌아다니는 음모론자들, 즉 칼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과격파들을 뜻했다.

“칼라의 초원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많아. 당신들이 이곳의 죽음을 방지한 이유는 칼라의 부역자가 있기 때문인가?”

“페트리 상단은 배신자야. 그들이 형제를 팔아넘기고 알타의 으뜸 대상(隊商)이 되었지. 그들을 살려둘 수는 없지.”

“하지만 죄 없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무법자’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초원에

서는 그들에게 절대 두려운 티를 내서는 안 됐다. 길잡이 블론은 이제 자신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피와 백작부인에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이스피는 그 말에 키득거렸다. 어느새 마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역참 마을이 비어있던 것은 당신들이 한 짓이지?”

“걱정 마, 관계 없는 이들은 모두 무사할 테니. 칼라로 돌려보내 준다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말이야.”

“그건 다행이로군.”

“당신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물어보지 않나?”

“뭐, 어찌겠어.”

길잡이는 땅에 대(大)자로 드러누워 팔을 하늘에 뻗었다. 이미 손끝 새도 없이 변해버린 손에는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피나 흙으로 잔뜩 더럽혀져 있었다. 결국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래도 두 사람 정도는 살아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스피는 아직 살아있는 ‘상단과 관계 없는 일반인’을 기적을 써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소란이 잦아드는 광경을 보며 그는 그래도, 끔찍한 최후가 될 뻔한 것이 제법 좋게 결말을 맺는 것이라 생각했다. 시선을 위로 돌리면 백작부인은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며 칼을 든 채였다. 그는 어찌면 잔인한 사형 선고를 뱉었다.

“당신은 죽을 거야. 아마 그래야겠지, 아인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상관없어. 그편이 낫지.”

“가족에게 전할 건 있나? 편의를 봐 주겠소.”

길잡이는 무언가 곰곰히 떠올리다, 웃음을 터뜨렸다. 웃으며 눈을 느리게 감는 얼굴은 초연했다. 기껏 선물 받은 귀한 물건을 쓰지 못하게 된 것

은 아쉬웠으나, 그건 아마 원래부터 제 몫이 아니었던 모양이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직접 전하면 될 일ियो.”

A person wearing a wide-brimmed hat and a dark cloak sits on a grassy hill, looking out over a valley. A small white sheep with a black face sits next to them. In the background, a large, dark, multi-story building with a tower sits on a hillside. The sky is a warm, golden yellow, with a large, bright sun in the center. The overall style is that of a watercolor illustration.

꿈에는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먼 옛날이 나왔다.

도시 바깥에서 하릴없이 양이나 치던, 인간 세상의 온갖 꼴을 보고 살지 않아도 되던 그 때가.

때로 아서 무어는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알타 바깥의 작은 마을, 발타(Valta)에서는
성도 필요없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받거나, 좀 특이한 놈이라는 이리
쿵저러쿵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 그곳에
서 아서 무어는 그저 ‘아르투르’라는 이름
으로 불리는 썸이 빠른 목동일 뿐이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서 형이 차려주는
밥이나 먹으면 되었다. 하루하루가 챗바퀴
처럼 같았다. 굴곡 없이, 행복하지도 않지
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평범한 나
날. 그 일상이 왜 깨졌느냐 하면…….

—애. 네 재능은 썸히기 아까워.

아마, 이 때였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양을 치던 언덕 위에서 만난 떠돌이로, 졸고 있는데 자꾸 말을 걸길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나중에는 나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 들어서 몇 번 응수해주었더니 점점 보는 시선이 이상해지질 않던가. 자꾸 글을 배운 적은 있는지, 집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는 잘 다니는지 캐묻는 것이 귀찮아서 나중에는 양 치는 자리를 아예 옮겨버렸더니 어느 날 밤, 집에 손님이 와 있었다.

—락테아에 다닐 자격을 주마. 네게는 싹이 보여.

그 사람이었다.

기사단의 문장을 새겨넣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우리의 검은 죄악을 심판하고
우리의 방패는 생명을 지키리니
빛의 이름 아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길을 열어갈 것을 맹세하노라

기사단(騎士團) Knights Templar

하늘이 무너져 세계의 균열이 드러난 이래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창설된 교회의 수호자이자, 칼라 왕국의 최후의 방패.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성도에서 개최되는 무투대회에서 자신을 증명한 이들은 시련을 거쳐 선배들로부터 [기적]이라 불리는 이능의 힘을 이어받으며, 아인과 적색 침묵의 재앙에 맞서 싸운다. 이 세계는 그들의 힘으로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버텨내고 있다.

검은 갑옷과 흰 망토를 걸친 그들은 인간과 괴물의 경계에 서서, 피와 신념으로 균형을 지키는 존재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이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하나는 도시의 수호자라는 찬란한 명성이며, 다른 하나는 적색 침묵의 재앙을 불러내는 “마법사의 핏줄”을 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냉혹한 집행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면모는 아닐 것이다. 당신이 마법사가 아니라면, 혹은 마법사로 의심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에게 한없이 친절한, 헌신적인 수호자일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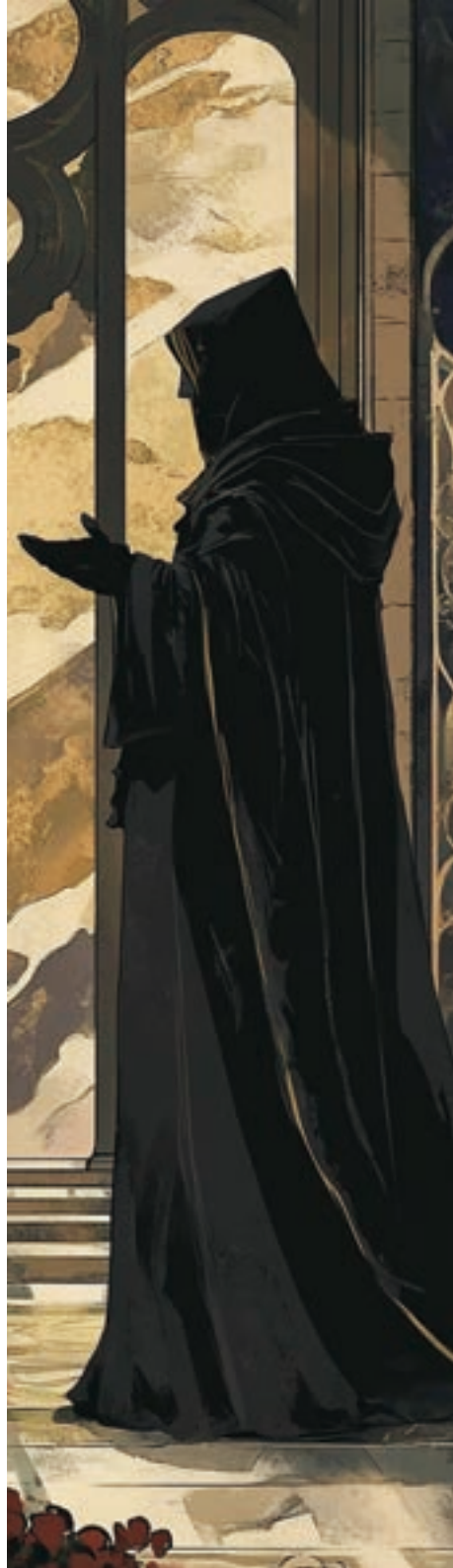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은 날개와 같은 기사단.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길을 걷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사람들은 믿는다. 그들의 검이 칼라의 마지막 빛을 지키리라는 사실을.



이단심문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척탄성(赤誕聖) 또한 기사단의 직속 산하 기관이다. '정화'와 '심판'이라는 이름 하에 움직이나, 그들은 적색 침묵의 환자들과 이단, 그리고 고대 마법사들의 잔재를 찾아내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다. 기사단이 현존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에 피고를 끌어내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하늘의 균열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균열로부터 무엇이 변하여 이 땅에 재앙이 도래했는가?

그러므로 그들 '정화'의 명목은 종종 과도한 간섭과 무고한 피해를 야기한다. 척탄성은 그들의 의심이 곧 증거가 되는 기관이기에,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고발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행위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믿고 행동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이 오면 누구도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이 세운 혐의는 종종 증거를 넘어서 믿음에서 시작된다. 심문관의 질문은 죄가 되고, 침묵조차 의심을 부르기예.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각 도시는 모두 ‘기사단’을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지역은 그 안전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북부에 위치한 라파 대공국(Grand Duchy of Lapia), 칼라 최대의 항구 알타를 제외한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기사가 없다. 10년 전, 아흐타 대공이 왕에 대항하여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한 뒤로는 그 보복의 일환으로서 수도에 기사도, 군주도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젠가 돌아올 대공을 기다리며 기사단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음모론자, 무법자, 무정부주의자, 이단- 온갖 오명을 끌어안고 살았지만 모든 행적이 소문에 불과한 기인들. 교회도 없는 주제에 기적을 받는 비밀스러운 사람들.

‘도시가 없는 기사’란 그들을 말했다.

허락받지 못한 권능을 행하는 북부 칼라 초원의 무법자들, 기사단의 후에.





Ⅲ. 안부 인사

—좋은 아침이오, 샬러리 한 단!

—샬러리 한 단!

—그거 아시오? 천문대에서 한다는 학회 말입니다.

—알지! 벌써부터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아.

—반역자들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쩐지 이단심문관이 많더라니.

5. 재회는 평화롭게

아침,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아서 무어는 밝은 햇살이 얼굴을 정면으로 내리쬐자 눈이 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귀가 먼저 깨어났다. 새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는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고, 무언가 가루내는 듯 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코가 깨어나자 그건 썰기풀 냄새라는 걸 알아차렸다.

“으으.”

마침내 몸을 움직여 그는 옆으로 굴렀다. 학교나 야영 중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보송한 이불 감촉이 기분 좋았다. 한참을 이불에 파묻혀 있다가 눈을 떴을 때, 아서는 익숙한 천장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떴다. 찬장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토끼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으나, 아서는 집에 돌아왔다.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는 걸어 들어오는 익숙한 사람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 알리키.”

그러나 알리키 무어는 전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문간을 넘어 들어오다 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좋은 아아아아아아침-?!”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담. 아서는 상체를 벌떡 일으켜 쿠션에 기대 앉았다. 왜 또 일어나라 한 적 없는데 의사 허락 없이 일어나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자, 알리키가 손에 쥐고 있는 유리잔이 부서질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는 며칠은 못 잔듯 안색이 안 좋다 못해 시커멓게 변해 있었는데, 형클어진 머리에 며칠 못 갈아입은 듯 다 구겨져 있는 옷까지 곁들여져 완전히 그 자신이 환자 꼴을 하고 있었다. 아서는 귀를 막았다- 그리고 즉시 커다란 손이 아서의 손목의 잡아채더니 귀에다 대고 잔소리를 직통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좋아 보이냐, 이 생각 없는 자식아!”

“아악.”

“뭘, [학회 때문에 알타 가는 중]? 그거 한줄 달랑 써 두면 내가 ‘아 그렇구나! 동생이 오니까 빨리 준비해야겠다, 정말 신난다!’ 하고 고마워 할 줄 알았냐, 대책없는 꼬맹이 같으니라고!”

“아아아아아, 아파! 아프다고!”

알리키가 아서의 귀를 아주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아서는 거의 목이 반쯤 꺾인 채로 마주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먼저 잘못된 자식이 큰 소리냐고 더 혼나는 꼴밖에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한차례의 분노 표출로도 알리키 무어는 제법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병원은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알리키 무어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이기 그지없으나 아서가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치료실 의자에 앉았다. 오스카 세텔은 바깥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 소동을 듣더니 무언가 납득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학부에서 사 년 내내 사고 안 친 적이 없는 망나니의 성격이 이해가 된다! 유전이 분명했다.

알리키 무어는 아서의 상태를 기록해 둔 종이를 뒤적거렸다. 평소 같으면 환자에게 온갖 짓을 주절거리고 있을 사람은 어차피 동생에게 뭘 말하든 안 들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아서는 저녁 이든 낮이든 제가 먹고 마실 식사에 이상한 재료가 첨가되어 있으리란 사실을 직감하고 인상을 와락 구겼다. 남이 알 바는 아니었다.

아서 무어는 협탁에 놓여 있던 레몬 사탕을 입에 던져 넣으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 얼마나 잤어?”

알리키는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사흘.”

“뭐? 진짜로?”

“그래, 사흘. 그거 알아? 열이 하루만 늦게 떨어졌으면 평생 자고 있었을 거다.”

“아니지. 알리키는 실력이 좋잖아.”

“망할 놈.”

그는 한숨을 쉬고 동생을 계슴츠레 노려보다가, 결국 펜을 든 손으로 머리를 벽벽 쓰다듬고 말았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걱정하지 않을 리가 없지. 그는 느리게 말을 이었다.

“경비대가 너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수명이 20년은 줄어드는 기분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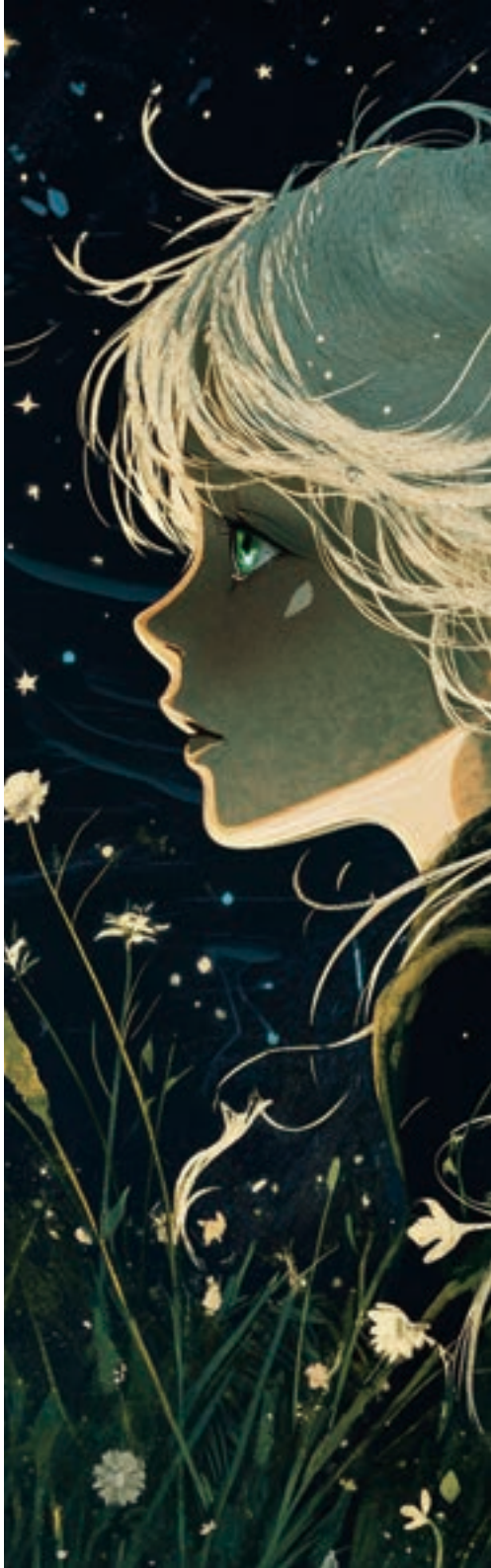
“경비대?”

“그래. 네 친구가 널 업고 알타 근처에서 헤메고 있던 걸 알타의 기사가 먼저 발견했다고 했어.”

알리키는 아서와 오스카가 알타에 도착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듣자하니 이스피라는 도시 없는 기사(아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나 침묵했다)가 공간을 이동시키는 기적을 사용해 알타 인근으로 아인 때로부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전송시켰고, 갑자기 겁에 질린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을 열어달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니 기사단이 깜짝 놀랐더라는 것이다. 그 콧대 높던 기사단이 직접 성벽 바깥으로 나가 주변을 정리했다고 했다.

오스카와 아서는 거의 마지막에 발견되었다. 그때 아서가 ‘표적’ 삼아진 탓에 머리에 계속 충격이 가해진 여파로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고, 오스카가 길을 잃었다. 이 대목에서 아서는 어처구니없다는 시선으로 오스카를 바라보았다. 슬금슬금 치료실로





검은 머리칼에 푸른 눈이라던가, 붉은 곱슬머리에 금색 눈이라던가, 얼굴이 없었다느니, 다섯 살배기 어린 남자아이라느니, 세상에서 처음 보는 모습의 추녀였다느니, 나병 환자라느니— ‘이스피라는 추방자 기사가 구해주었다’고 말한 이들의 외형 진술은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었다. 아마 그 또한 [기적]의 탓이리라.

그러나 아서 무어와 오스카 셸던만이 기억한다. 그는 설원의 눈꽃같은 흰 머리칼을 가지고 있으며, 눈은 달빛 아래에 형형이 빛나는 녹색이었다. 찰나의 만남이니 어떤 인물이라 단정지을 수 없으나, 그는 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줄게.”

들어오던 그는 멧쩍은 표정을 지었다.

“천문학과가 방향도 구분 못 해?”

“아니, 망원경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안 다르거든?”

“조용히 해, 싸우지 마. 아무튼 그래서 말이야. 원래는 너희가 무슨…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비대에 붙들려 있었는데 네 열이 하루가 지나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나한테 데려오더라고. 어차피 신원은 확실했으니까 편의를 봐 준 거겠지. ‘그’ 아서인데.”

“악.”

알리키가 손가락을 튕겨 아서의 이마를 쳤다. 딱- 하는 소리가 울리자 오스카가 제가 다 아프다는 듯 보더니 한 걸음 물러났다. 아서는 이제 몸을 완전히 일으키고 억지로 손에 쥐여진 뜨거운 차를 마셨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맛이 나는 걸 보니 약 밖에 안 들은 모양이었다.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온몸이 육신거리는 것을 보면 상태가 확실히 좋지 않긴 했던 모양이었다. 이게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이 다행이라 할지, 불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행해해야 할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단지 죽을 뻔 했다는 그 이유 뿐만이 아니라, 형이 계속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긴 있었다. 아인의 표적이 되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10년 전에 적색 침묵이 급작스레 확산될 때 한 번 표적이 되어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정말로 죽을 뻔 했지, 아마?”

“‘아마’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

“웃음이 나와?”

회상하자 알리키와 오스카가 탄지를 걸었고, 아서는 무시했다. 알리키는 마침내 한숨을 쉬고 아서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자신의 이마를 부여잡고 절망을 했다.

그의 동생은 이상할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한가하기 짝이 없는 경향이 있었다. 어릴 적에도 그랬고, 고래한테 바닷속으로 끌려들어갔다가 기사에게 구출되었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심지어 그래서 다치더라도 ‘살았네!’ 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끝나질 않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만 미칠 지경이었다.



“차라리 엄마가 꿈에 나왔으면 좋겠네. 화를 내셔야 내가 정신을 좀 차리지.”

“징계 위원회 열렸을 때도 안 나오셨는데.”

아서는 능청스레 대답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있어, 별로 시덥잖은 일.”

“무슨 소리냐니까?”

알리키는 눈을 뵈죽하게 뜨고 마치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서는 별로 중요한 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오스카는 그 꼴을 보고 꽤나 큰 소리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치료실 문을 닫고 나갔다. 기다렸다는 듯 설명하라는 고함 소리와 여전히 한가하기 짝이 없는 능구렁이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중간 중간 ‘싸움질이나 하라고 학교를 보낸 게 아니다’ 라던가, ‘그래도 내가 이겼다’라는, 둘 다 행복해지기란 영원히 불가능할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다 오스카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서가 열에 쓰러져 있던 사흘 사이, 병원을 오가는 이들은 익숙해졌을 심부름꾼이었다.

“나는 내 동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손님이 왔는지 모르고 있는 치료실 안은 지지부진한 말싸움에 한 사람만 지쳐 나가떨어진 상태였다. 아서는 속으로 브이를 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키웠잖아? 난 이미 다 커 있었어.”

“닥쳐.”

“흥.”

“—형, 방에 있어요?”

심부름꾼 소년은 바로 그 때를 틈타 방에 들어왔다. 지난 열흘 사이 알리키는 매일같이 본 얼굴이 수줍게 미소지으며 들어오자 손을 흔들었고, 아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자 눈에 땀 낫선 얼굴에 고개를 좌우로 불량하게 까딱였다. 갈색 더벅머리에 녹색 눈, 안경까지 쓴 어린애는 그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앗, 일어나셨네요!”

“흠.”

“아. 저는 아티예요! 견습 선원인데, 지금은 병원 일을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그렇군.”

“.....”

“.....”

“야, 싸가지 있게 굴어.”

알리키 무어는 누가 봐도 초면의 꼬마에게 툃툃거리고 있는 몸만 큰 어린애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툇 쳤다.

아서가 침대로 얼굴부터 덮어지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어린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그는 장에서 치료 도구가 든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서로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는 두 꼬맹이를 빠르게 손가락으로 번갈아가며 가리켰다.

“자, 아르투르-아서. 이쪽은 아르투리-아티. 아르투리-아티, 이쪽은 아르투르-아서. 댔지?”

“뭘? ‘아’ 밖에 못 들었는데, 다시 좀 해 봐.”

“아티예요. 형 이름은 이미 알아요! 알리키 형한테 들었는데.”

“내가 왜 네 형이야, 꼬맹아. 난 동생 같은 거 없어.”

“.....”

“야, 어른스럽게 굴라고.”

알리키는 핀셋을 들고 아서를 위협적으로 가리켰다. 한껏 시무룩해진 아티가 모자를 벗자 아서는 꼬마의 머리에 난 커다란 바늘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알리키는 만족스러운 듯 주위를 살짝 만지더니 의료용 가위를 들었다.

“실밥은 오늘 풀어도 되겠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심부름은 그만 나와도 돼, 동생 시키면 되니까.”

“뭐야?”

“에이, 그래도 도와드릴래요. 어차피 배 뜨기 전까진 할 일도 없는데.”

“이럴수가, 누구랑은 다르게 아주 친절하네! 마음대로 해, 용돈은 줄 테니까.”

“뭐냐고.”

아서는 저를 빼고 화기에애한 두 사람을 보고 불만스러운 듯 손바닥을 휘휘 저었다.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아서 동생이 제가 맞는지, 처음 보는 저 꼬맹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오스카가 잠시 들어왔다가, 자기는 잠깐 동네 산책을 하겠다 말하더니 영영 나가버린 뒤로(알리키는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서는 시선으로 불태울 듯 ‘아티’라는 꼬맹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호기심인지, 성격은 성격대로 나쁜데 통제광 기질까지 있는 동생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 대해 갖는 적개심인지 알 순 없었으나…… 알리키는 아마 둘 다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알리키는 실력이 좋은 의사였다. 아티가 시선이 내리 쏘이며 사시나무처럼 떠는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실밥을 풀고는 연고까지 바르고 이제 가볍게 붕대로 한 바퀴를 감았다. 머리를 벽벽



알리키 무어의 병원에는 온갖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가 가장 행복
해 보이는 시간은 다름아닌 환자들이 모두 퇴원한 뒤의 빈 침대를
정리하며 커튼을 걷을 때다.

쓰다듬자 쑥스러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뭘, 난 돈 받고 할 일 한 거야. 이제 조심 좀 하고 다녀라.”

“에이, 저를 뭘로 보고.”

“아침카까지 다녀와 놓고 책상 모서리에 살해당할 뻔한 열세 살?”

“……헤헤.”

“아침카에 다녀왔다고?”

한참을 불통스럽게 있던 아서는 서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이름이 나오자 관심을 보이며 이제서야 소년에게 누그러진 얼굴을 했다. 드디어 상대방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차서 아티가 밝은 목소리로 거의 외치듯 자랑을 늘어놓았다.

“네! 가는 동안 실수로 무풍지대도 들어가고- 일이 많긴 했지만요, 꽤 재미있었어요.”

“저 미친 고래 떼를 뚫고 가면서 재밌다는 말이 나오는 너도 특이하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칭찬은 아닌데. 아서는 눈만 깜빡이며 알리키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인 듯 미소를 띠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단골손님이 생긴 기분이 드는 모양이었다.

그 정도 나이대의 전습 선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어지간한 어른도 못 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도 그 무용담을 말하고 다닐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니 신이 난 모양이었다. 그들은 소년이 서쪽으로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들으며 잠깐의 아무 일 없이 조용한 평화를 즐겼다. 흔히 전설처럼 전해지는 황금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없었지만 신기한 동식물이 정말 많았고, 그 중에서도 사탕수수는 최고라 했다. 서대륙에서 들어온 것중 감자는 아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귀족

들이나 이게 뭐냐고 여전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 평민들은 이미 빵 대신 그걸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항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지만 밝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아티는 곧 눈살을 찌푸렸다.

“어른들 말로는 전쟁이 난댔거든요.”

“울디림의 장군이 아집카의 왕자를 죽였대요. 뭐더라… 아인화병에 걸렸다 그랬나? 미연에 조치한 거라던데 아무튼. 제가 돌아올 때 이미 울디림 사람들은 도에서 거의 빠져 있었어요.”

“핑계 한 번 뻔하네.”

“뻔하고 정석적이지.”

식민지 경쟁이다. 칼라의 바로 아래에 있는 울디림 제국은 처음으로 서 대륙에 들어가 이쪽 대륙으로 물건을 팔며 큰 부를 쌓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너도나도 함대를 보내니 위기 의식을 느낀 모양이었다. 최근 선박에 무기가 꽤 많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알타 항구의 사람들이 모르진 않았지만, 그저 다른 대륙의 일이니 침묵했을 뿐이다. 먼 땅의 비극보다는 우리 앞바다의 고래가 생계를 끊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으니 말이다.

알리키는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히 그도 저쪽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으로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니 할 말은 없었다…….

그렇지.

그는 곧바로 이 주제를 잊어버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박수를 쳤다. 아서는 순식간에 오락가락하는 표정을 보고 이 사람도 어딘가 아픈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했다. 알리키는 아서를 바라보았다. 아서도 알리키를 바라보았다.

“뭘 봐?”

“사탕수수 3파운드 얻어 왔다.”

“뭘 해 먹지?”

“이것 좀 보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성격을 보라, 알리키는 슬슬 반격할 기분도 느끼지 못했다. 생각해 보면, 대학 간다고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놈은 이랬다……. 그는 옷걸이에 대충 걸어 둔 외투 주머니를 뒤지더니 아서에게 지갑을 꺼내 던졌다. 가죽 지갑은 대충 보기만 해도 고급이었으나, 때 묻고 껍데기 벗겨지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연식이 한두 해 된 물건이 아니었다. 좀 바꾸고 살라니까, 알리키의 알뜰한 성격은 고쳐지질 않는 모양이었다. 아서는 어찌라는 거냐는 표정으로 알리키를 바라보았다. 알리키는 노트 한 페이지를 펼치더니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북 뜯어내고 아서의 주머니에 넣다 꽂아넣었다.

“장 좀 봐 와.”

“나 지금 환자 아냐?”

“꼴을 보니 락테아까지 뛰어가도 될 것 같은데.”

“감초 사탕 사 와도 돼?”

“마음대로 해.”

좋은데.

아서가 지갑을 뒤지며 돈을 세고 있자 알리키는 잠깐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 손짓해서 멀뚱히 앉아 있던 아티를 불렀다. 꼬마가 잔걸음으로 달려가자 알리키는 손을 가져다 대고 귀에 소곤거렸다.

“아티, 부탁 좀 해도 될까?”

“그럼요. 뭘 도와드릴까요?”

“재, 리스트 적어준 거 다른거 못 사게 감시 좀 해 줘.”

“음? 그거야 쉽죠. 그런데 왜요?”

“.....옆에서 안 지켜보면 일주일 식비로 죄다 커피만 사 올걸.”

“.....최선을 다해 지켜볼게요!”

글쎄, 사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알리키는 동생의 지독한 경제 관념을 떠올렸다. 개선되지 않았다면, 아티가 열심히 감시해서 음식 재료만 사 온다 해도 8만 마르카를 써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다녀오기에는 분명히 창문으로든 뒷문으로든 도망쳐 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감시라도 붙여두는 편이 모두에게 편했다.

낮선 어린이가 옆에 붙어 있으면 본인도 불편해서 빨리 집에 오고 말겠지, 뭐. 알리키는 한숨을 쉬었다. 아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코트와 모자에 손을 뻗다 말고- 찬장에 머리를 부딪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알리키는 생각했다.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군.



그리고 열세 살짜리 수습 선원은, 왜 알리키 무어가 그렇게 아서 무어의 경제 관념을 불신했는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다. 시장에 나온 지 고작 20분도 안 되어서 말이다.

“사과 한 알에 3천 마르카면 썬 건가?”

“사과 한 알은 3백 마르카도 비싸, 짙은 양반.”

오죽했으면 장터에서 가장 바가지로 유명한 과일 가게 상인도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을 하며 정가를 알려주겠냐고 아티는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티는 지금, 이상한 데서 전 재산을 탕진하려는 아서 무어를 네 번째로 붙잡은 참이었다. 처음에는 정육점에서, 두 번째는 야채 가게에서, 세 번째는 향신료 노점에서, 네 번째는…… 바로 지금.

아서 무어의 머리에는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에 사야 좋은지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다!

락테아 아카데미에 다니는 도련님들 가운데에는 그런 식으로 시내에서 흥청망청 용돈을 다 써 버리는 학생이 부지기수라고 듣긴 했지만, 여긴 수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도련님인 건 더더욱 아닌데도 말이다.

아티는 불안한 얼굴로 아서를 바라보았다.

“아카데미에서는 어떻게 물건 샀어요?”

“돈 아끼느라 학교 잡화점만 썼는데. 깃펜 열 개에 오만 마르카.”

“돈을…… 아꼈군요……?”

“뭐야? 나만큼 알뜰한 학생이 또 없었는데. 너 오스카 봤으면 알지? 개는 하나에 만 마르카짜리 펜을 썼다고.”

저 학교 사람들은 다 저러나? 아티는 눈을 쉴 새 없이 흔들며 아서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아무래도 의사 선생의 지갑을 지키려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열세 살이었다.

사실, 아서 무어가 원래 이 정도로 심각하게 경제 관념이 없지는 않았다. 아니- 없긴 하나, 뉘을 놓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도 분간을 못 하지는 않았다. 이걸 그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아서는 시장통에서, 아티가 자신을 끌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길잡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형, 무슨 생각 해요?”

-아서, 딴 생각 하지 말고 오스카랑 잘 따라와.

“.....딱히.”

그는 어떻게 됐을까?

아서는 너무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불현듯 생각했으나, 강제로 알타로 보내지던 통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솔직히 그때 스스로 어떤 상태였는지 아서는 기억이 거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아인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대고 있었는데. 눈 떠 보니 일 년만에 만나는 형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건 하나뿐이었는데, 그 이상한 백작부인과 종자가 ‘도시가 없는 기사’라 했던 것뿐이었다. 아서는 다시 지끈거리는 머리 왼편을 잡고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 라파 대공국이 칼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한 뒤로는 수도에 기사도, 군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젠가 돌아올 대공을 기다리며 기사단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음모론자, 무법자, 무정부주의자, 이단, 점술가, 마녀—

온갖 오명을 끌어안고 살았지만 모든 행적이 소문에 불과한 기인들. 교회도 없는 주제에 기적을 받는 비밀스러운 사람들. 도시가 없는 기사란 그들을 말했다.

“하아.”

죽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지. 죽이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 죽

였을지도 모르지. 길잡이는 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언제 변해버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성서]를 봤는데, 눈속임에 성공해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괴물이 될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또한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바람이라는 것을 아서는 알고 있었고, 온갖 생각을 하며 느리게 발 걸음을 옮겼다- 길바닥에 놓인 뜨내기 강매용 그림 밟지 말라고 꼬맹이가 고함을 쳤다.

“그거 밟으면 만 마르카는 바로 깨질 거라고요!”

“안 밟으면 얼마데?”

“안 밟으면…… 하, 당연히 안 사는 거죠.”

왜지, 잘 그렸는데. 아서는 멀뚱히 발치에 있는 황금 나무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서는 쭈그려 앉아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철문, 장미꽃이 가득한 벽돌 담과 여신의 조각상…….

“락테아잖아.”

“젊은 양반, 대학생이야?”

화가로 보이는 사람이 아서의 중얼거림에 반응했다. 아서는 온몸에 물감이 얼룩덜룩한 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로 3년차예요.”

“그래? 알타에는 왜 왔나?”

“학회 왔지요. 겸사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는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반가웠는지 갑자기 의자를 끌어 아서에게 앉으라고 내밀더니, 자기가 수도에 갔을 때 보고 느꼈던 감상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빨리 심부름을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던 아티는 미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멀찍이 서 있었으나, 들어줄 벽이 필요했던 화가와 판생각을 할 만한 자리가 필요했던 아서는 온종일이라도 이려고 있을 듯했다.

*

그런 아서를 누군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재는 꽤나 물건인데.”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가 증얼거렸다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인물은 골목 구석의 그늘진 곳에 서서, 온몸에 검은 망토를 두른 채, 얼굴은 보이지도 않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털을 쓰다듬으며 의문에 찬 듯 혼잣말을 했다.

“아는 사람이야?”

“유명하잖아, ‘아서 무어’. 언어학의 귀재.”

“몰라, 그런 놈.”

왼쪽에는 그보다 머리 두 개는 작은 키의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양손에는 검푸른 액체가 푹푹 떨어지는 검을 쥐고 있었다. 바닥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인간- 아니, 인간을 닮은 ‘무언가’가 목이 떨어진 채 죽어 있었다. 큰 사람은 불쾌하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발로 몸을 걷어찼다. 비늘과 가시가 돋은 몸통이가 힘없이 바닥을 굴렀다.

작은 이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열흘 사이에 도시에서 생긴 아인이 벌써 다섯 마리 켜야.”

“10년이 지난 이제야 움직이는 이유는 뭐지?”

“모르지, 그거야. 하지만 기사단이 하는 소리로는…….”

스릉, ‘피’에 젖은 칼을 닦지도 않고 집어넣으며 서슬퍼런 소리를 냈다. 두 수상한 인영은 세 번의 도약으로 골목 담벼락을 밟고 지붕 위까지 뛰어 올랐다.

고요하기 짝이 없는 평화로운 하루,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옆에 두고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는 저녁의 활기를 띤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노을 지는 태양은 백색의 항구 알타를 주홍빛으로 물들였다.

“도시에 예언이 숨어들었다. 기적으로도 부술 수 없는 강한 운명이 인간의 겉가죽을 뒤집어쓰고 때를 기다린다고.”

작은 인영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이름, 침묵하는 진홍.”

한편, 아서가 화가에게 붙잡혀 있는 사이 오스카는 제법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실, 오스카 세텔은 알타에 친지가 없었다. 이곳이 고향이라고 해도 가문은 이미 자신의 락테아 입학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모두 수도로 떠났다. 자녀나 형제를 통해 락테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맥이란 전통적인 귀족보다는 장사꾼에 더 가까운 신흥 귀족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게 없을 정도로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방학마다 떠나는 곳은 알타가 아니라 알타 인근의 소도시였다. 4일 전의 사태에서 길잡이들이 경유지로 선택했던 곳이기도 했고, 떠나지 않은 조부모님이 사는 곳이었다. 알아보니 그곳은 괜찮다고 하긴 하던데, 돌아가는 길에 들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스카는 종이에 무언가 끄적였다. 안내원으로 보이는 이가 피곤한 얼굴로 책상 너머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름은 작성하셨나요?”

“아, 네.”

안내원은 오스카에게 출입증 뱃지를 내밀었다. 하루종일 수십 번이나 말한 듯 오토마톤같은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렸다.

“열람은 인원 관리 문제로 인해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5층부터 8층까지는 천문대 소속 연구원들의 개인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되며 옥상 관측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사전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서를 훼손할 경우 최소 50만 마르카, 장비를 파손할 경우 200만 마르카가 청구됩니다. 모쪼록 알타 천문대에서 유익한 시간 되세요!”



오스카 세멜이 전공을 두 번이나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정성으로 동생을 챙기는 누나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매 학기마다 통큰 기부를 하는 '레베카 세멜'을 모르는 이는 없다.

“.....넵.”

절반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오스카는 한숨을 쉬고 나무 문을 열었다.

그는 천문대 장서실에 와 있었다. 조금 전 알타의 시내를 조금 걸어보니 도시는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대한 학술 회나 다름없었다. 말 많은 학자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할 노점상들을 붙잡아 두고 자신의 새로운 연구 업적을 떠들어대는가 하면 다른 학파의 유명 인들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노천 카페테리아의 탁자에서 바쁘게 논문을 수정하다 말고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방금 처음 본 노점 상인이 아이스크림을 팔다 말고 오스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무래도 딱 봐도 참관을 온 학생이 분명하니 그랬을 것이다.

—아주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음. 오스카는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는 아마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놓인 학교 선배나 은사들을 보고 있을 테니까. 이 시기의 천문학회에는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대체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부지깽이를 집어들고 결투나 일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이 분명했다.

특히 거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또 있었다. 기사거나, 기사가 아니면서도 몇 세기 전의 기사처럼 전신에 철갑옷을 입었거나 허리에 검을 찬 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도 길을 걷다 말고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래위로 훑어보고는 ‘흥!’하는 콧소리를 내고는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노점

상은 한번 더 한숨을 쉬고 설명해 주었다.

—학회와 동시에 라파 반란 진압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 그거. 올해는 꽤 빠르네요?

그것은 라파 대공국이 500년 전 벌였던 반란을 제압한 것에 대해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는 칼라 최대의 조롱적 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미 그 유래조차 퇴색된 지 오래고 그저 북부 지역 세력가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친선의 장이었지만, 왕국에서는 절대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할 정도로 꾸준히 그 원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제 대공도 없는 공국의 사람들은 다소 어이없는 듯한 반응이었으나 딱히 틀린 것도 아니었으므로.

—반역자인데다가 이단이고, 마법사에, 그 최후가 아인이었다는데

잘 죽었지, 뭐!

알타에 온갖 괴짜들이 돌아다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나 동시에 귀족 나으리들의 개인 호위가 몇 명은 붙어 있을 테니 당분간 지역의 치안이나 안전은 확실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오스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다지 관심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천문대에 있을 장서만 궁금했으니까.

바로 이것 말이다. 오스카는 장서실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는, 이미 색



다 바랜 양피지 뭉치에 가까운 책을 보고 신나게 걸어갔다.

“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

어떤 절규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뭐야, 무슨 일이에요?”

“.....”

“흠?”

오스카는 비명 소리를 듣고 우뚝 멈춰섰다.

책 주위에는 사람들이 의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웅성거리며 모여서 자기 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그 뒷열 사람들은 바닥에 온갖 양피지 더미를 늘어 놓고 뭐라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죄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들어온 오스카와 몇몇 새로운 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주위 아무나 붙잡고 무슨 일이야 하고 수군거렸다. 방금 비명을 지른 학자는 완전히 지쳤거나- 혹은 정신이 나가겠다는 얼굴이었는데 사실, 이 공간의 대부분이 비슷한 상태인 듯했다.

오스카가 붙잡은 학자는 황금 여신상을 붙잡고 거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꼴을 보다가 오스카는 순간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나고?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

“음, 심각한 일인가요?”

“엄청나게. -자네, 어디서 왔나?”

“락테아요.”

“그럼 됐어, 꺼져! 감히 나한테 이런 재앙을 던지다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예?”

이건 뭐지? 당신이 누군데. 오스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고, 씩씩대며

멀어져 가는 나이 많은 학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 했다고? 약간은 억울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자, 그의 조금 전 상황을 바라보던 보다 젊은 학자가 다가왔다. 그 역시 눈 밑이 시커멓게 변한 채였다.

잠시 후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체가 말했다. 오스카는 내심 불사의 저주에 걸린 아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무슨 과예요?”

“천문학부요. 저는 참관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 저분은 파토스에서 온 교수님이고요. 방금 논문이 하나 날아가셨죠.”

“예?”

오늘 이런 멍청한 소리를 몇 번이나 내는지 모르겠군. 그는 아마 아서가 옆에 있었더라면 멍청한 소리 좀 그만 내라고 옆구리를 찔렀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아니지, 아마 당분간은 관참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늘 보니 아서 무어는 평소의 오스카 세텔만큼이나 헤실헤실 웃으며 락테아 사람들이 보았다면 충격에 빠져 일주일은 앓아누울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좌우지간, 파토스 대학의 교복 로브를 입은 시체가 말했다.

“저 고대 문헌 말이에요, [천구의 진리]인가 하는 그거.”

“공개 시기 짧아서 온 대학에서 학자들을 불러와서 필사한다는 그거요?”

“네, 그거…… 하, 미치겠네.”

파토스의 학생이 고개를 쳐들더니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덮고 앓는 소리를 냈다.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학자 하나가 실성한 듯 웃더니 지나갔다. 그 뒤로 또다른 학자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고대 칼라어가 아니었어요.”

“네?”

“정확히는, 같은 문자 체계를 쓰는데 기존 방식으로 해석이 안 돼.”

“그거야 언제나 그런 일 아니었나요? 해석을 해도 단어의 용례나 의미가 현대와는 죄다 달라서 한 번 더 해야 하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 다른 언어야.”

같은 꼴을 하고 있는 키츠 대학의 학자가 끼어들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전혀 안 통해. 고대 칼라어가 아니라 제 2의 언어가 나타난 수준이라고.”

“무슨 뜻인가요?”

“고대 칼라 문자로 적힌 건 확실하거든? 그런데 1차 해독을 해도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흠.”

“칼라어는 확실히 아니고, 율디림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 하고 다시 해 봐도 아니야. 칼라에서 고대어를 역으로 변환해봐도 아니고, 치환 암호인가 시도해 봐도 아니더군. 인정해야 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그 와중에 치환 암호까지 시도해 보셨군요…….”

끈기 한번 대단하다니까. 오스카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대다수의 학자들이 반쯤 포기한 채로 즉석 통번역은 포기하고 필사만 하기로 노선을 튼 모양이었다. 평생 ‘고대에는 고대 칼라어만이 유일한 언어였다’는 정설로 고대를 연구했던 학자들에게는 날벼락이 틀림없이 절망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다고 기뻐하는 학자도 있었으니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난장판이었다. 천문학자들은 안절부절못하다 말고 이 분위기에서 도망쳐 관측소로 가거나, 천문대 연구원들은 오히려

구경을 나오기까지 했다.

“음, 난 이거 안 해서 다행이다.”

이걸 소득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없다고 해야 하는지. 오스카는 본래 목표였던 ‘구경’은 확실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발을 돌렸다. 갑자기 순식간에 기운이 빠지는 듯 했다.

아서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마 개 성격이라면 대수롭잖게 넘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또 모른다. 지금까지 고대 칼라어 실력 하나만으로 날로 먹고 살았는데 밀천이 떨어졌으니 고향을 칠지도 모르지. 아니, 그런데 대체 그러면 개는 여행하는 동안 계속 뭘 해독하고 있던 거지?

하지만 고민에 빠져 있기에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와중에 서가에는 대학 도서관에도 없는 책이 무수했으니 너무 즐거웠던 탓이다.

오스카는 행복한 얼굴로 책장에서 책을 한 권 뽑았다. 동시에 누군가 그 책을 집었고, 오스카는 의아한 얼굴로 옆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헉.”

“음? 자네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오스카는 곧바로 책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군! 세텔. 자네 교수님은 잘 지내나?”

“건강하고 여전히 교수님을 싫어하시죠.”

“하하! 자네도 그렇고 그 사람도 참 별나지, 지도교수랑 다른 학파를 지지한다는데 그냥 두고 본다니. 아마 자네가 실력이 좋으니 그럴거야. 그렇지 않나?”

“과찬이십니다.”

웃으며 반기는 그는 키츠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기 때문이었는데, 의 교수는 아니라 해도- 그 사람이 오스카가 지지하는 학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명인사였기 때문이다!

요한 라르센 교수의 그것은 여전히 마법사와 기적, 아인이 세계에 관해 설명하는 주류 논리인 가운데 과학만이 인간을 설명하는 진짜 학문이라 말하는 괴짜들의 학파였다. 오스카는 쉬러 온 것이 갑자기, 더 나중일 것으로 생각했던 다른 스승과의 만남으로 변질되자 순식간에 정신력이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으레 그렇듯, 그는 전혀 티내지 않고 그저 방긋 웃었다. 이때는 아서 무어가 매번 뭐라 옆구리를 찌르는 ‘명청한 표정’을 고칠 수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라르센 교수가 물었다.

“이번엔 저 책 때문에 참 일찍부터 활기차군. 특히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많이 오니 천문대에서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처음이야. 자네는 혼자 왔나?”

“아뇨, 일행이 있긴 했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는 건 아무래도 똑같더군요.”

“오, 나랑 상황은 비슷했군.”

아서가 들었다면 너도 하루종일 괴상한 상형문자와 숫자 가지고 씨름하는 꼴 잘 봤다며 옆구리를 찔렀을 것이다.

라르센 교수는 오스카가 양보한 책은 사양하지 않고 대출하려는 듯 팔에 끼웠고, 내심 그게 읽고 싶었던 오스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으며,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라르센 교수는 오스카와 같이 왔다던 일행에게 관심을 가지는 듯 했다.

“일행이라면, 이번에도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라 하시면?”

“왜, 거기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 같던데…….”

그는 웃으며 입가에 손나팔을 만들고는 작게 속삭였다.

“락테아의 망나니?”

“헉.”

“맞군. 아서 무어라 했던가?”

“……맞습니다.”

“그래도 평판이 참 좋지, 실력이 뒷받침되니 이곳에 일찍 오게 되는 것 아니겠나.”

이건…… 칭찬인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오스카는 갑자기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마 본인에 대한 제가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넌 내 친구도 아니라고 그 신경예민증 통제광이 길길이 날뛰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카가 가시방석이건 아니건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르센 교수는 의외로 아서에게 관심을 가진 듯했고,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는 오스카를 놔줄 기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

“가족과 있을 겁니다. 오다가 사건에 휘말, 음…… 몸도 좀 안 좋아서요.”

“……자네들, 설마 발타를 경유하는 그 상단과 함께 왔나?”

오스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르센이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고는 오스카의 어깨를 툭툭 쳤다.

“목숨 내놨군. 그 길이 이미 통제 지역인 건 이미 고지가 됐을 텐데? 학교에서 막지 않았나?”

“……음.”

“……자네들, 키츠 대학으로 올 생각은 없나?”

“1학년을 한 번 더 했다간 누님한테 죽을 것 같아서요.”

그는 멧쩍게 웃으며 불을 굽었다. 락테아 아카데미는 칼라 최고의 학술 기관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성취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기로 유명했는데, 그건 앞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나게 위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아서와 오스카를 길잡이 하나만 붙이고 보낸 이유는 단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그나마 그 길잡이가 칼라 초원에서 가장 유명한 실력자라는 사실이 위안거리였다- 이제 없지만.

“그건 그렇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라르센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무어를 한 번만 빌려 가도 되겠나?”

오스카는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 아서를 ‘빌려 간다’고 하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 천문학에서 고대어학자를 빌려 간다는 것은 해석되지 않은 고문서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오스카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라르센 교수는 웃었다.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네.”

“뭘, 어려운 건 아니죠.”

오스카는 턱을 굽적였다.

“수락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괜찮다고 할 겁니다. 지금 할 일도 없는 녀석이니깐요.”

“그래, 고맙네. 부탁하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뭘.”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아, 별 건 아니고.”

이제 용건은 끝난 듯 제자들과 차나 같이 하자며(키츠 대학의 천문학도들은 라이벌 학교의 학생을 보고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장서관 바깥으

로 향하고 있었다. 재빠르게 뒤따라 걸었다. 라르센 교수는 별 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으나, 오스카는 아연한 표정이 되었다.

“마법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

“고대 문헌에서 찾은 뭐 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없나.”

그저, 기사단 귀에 들어가기만 해도 반역 혐의일 텐데요. 오스카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저 교수님 또 저런다는 표정의 키츠 학생들밖에 없었다……. 그는 어깨를 푹 숙였다.

괜히 산책 나왔다가 전해 줄 폭탄같은 소식만 두어 개 끌어안았을 뿐이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아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이렇게 말했다.

“뭐?”

그리고 스파게티가 돌돌 말려 있는 포크째로 식탁에 떨어뜨렸다. 알리키는 그 꼴을 보고 네가 다 치우라고 옆에서 뽁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그만큼 방금 들은 모든 소식이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나갈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 찾아온 오스카에게 30분 넘었으니 밥은 없다- 같은 소리를 하다가, 그렇잖아도 지갑이 된통 깨져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알리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한껏 심통이 뒤틀려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무슨 헛소리냐는 표정이었다.

“네가 뭘 잘못 먹은 거야, 아니면 그 양반이?”





“난 아주 멀쩡한데.”

“아이스크림 먹었다며. 가끔 우유 잘못 마시고 사흘을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놈들이 있던데.”

“난 아주 멀쩡하다니까.”

“알리키! 애 좀 봐줘, 하루종일 유명인사를 너무 많이 봤더니 머리에 열이 나서 미쳤나 봐.”

“멀쩡하잖아, 보면 몰라?”

아무튼 내 편이 없군. 아서는 턱을 괴고 생각했다. 이런 폭악에 햇불 떨어뜨린 것 같은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면 아무리 무던한 그라고 해도(아무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으나)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이었다.

천문학자가 마법사에 대해 왜 알고 싶어 하는가? 그보다, 이미 케케묵다 못해 좀먹은 ‘마법’에 대한 담론은 왜 꺼내고 싶어 하는가? 알 수 없었다. 고대와 현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법은 이미 사장된 이야기였다. 예전에 잠깐 있었고, 지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토착 종교에 가까운 전설이라고 말이다. 현대 인류가 아무리 고대 기술력에 집착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 없이 살아온 시절이 오천 년이 넘게 흘렀다. 마법 없이는 천 년이 넘게 살았다. 이미 충분히 독자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서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뭘, 알겠어. 일단.”





무명 학자의 여섯 번째 기록

The sixth record of an unknown scholar

파토스 아카데미아 Pathos Academeia

파토스 아카데미아는 지식과 탐구의 전당으로 불리며,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학술 기관이다. 기원은 오래전 사라진 고대의 아카데미아를 모방한 것으로, 철학과 학문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파토스 아카데미아는 '강의실 없는 학교'라 불릴 만큼 자유로운 탐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수와 학자들은 정해진 교과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연구와 학제 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배우며, 이는 고대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통합적 학문 체계를 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리 추구'이지만 이 자유는 종종 교회의 감시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대 문명을 연구하며 과거의 금지된 지식을 다루는 일도 많아, 파토스 아카데미아는 언제나 혁신과 이단의 경계를 걷는 기관으로 여겨진다.

“갈 거야?”

“거절하기도 뭣하잖아, 할 일도 없고.”

“내일 열두 시에 천문대 옥상 관측실로 와 달라고 하셨어.”

“그래, 뭐.”

“밤에 알타 천문대 관측해 보겠느냐고 물어보시던데.”

“.....”

“고향 하늘이니까 좋아하지 않겠... 냐고?”

“.....”

“.....싫구나, 알았어.”

아서는 대충 손을 내젓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알리키는 마침 편지 심부름을 갔다 돌아온 아티의 뒤통으로 식사를 하나 더 챙기고 있었는데, 아서는 활기차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소년에게 대충 고개만 까딱였다. 여전히 저 불청객같은 꼬마가 그다지 달갑진 않았다.

곧바로 그 기류를 눈치챘는지 오스카가 ‘새로운 고대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아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대어인데 체계가 완전 다르다고?”

“그렇다대.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봐야 알겠지만. 너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해석이 안 된 모양이지?”

“음.”

아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 12시 약속이니까 천문대 장서관이 문 열자마자 들어가면 사람 없이 구경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네 시간 정도는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평균 기상 시간이 오후 2시인 것이 아니라 8시면 이미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되지 않은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 판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는 식사에 열중했다. 알리키가 툭툭거렸다.

“오스카, 너도 빨리 먹어.”

“직접 하셨어요?”

“당연하지. 이거 한 접시에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 저놈한테 심부름을 시켜 왔더니…….”

한 접시에 만 마르카가 넘겠군.

오스카는 가족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침묵하고, 머릿속으로 지구 표면 둘레 계산 이론 수식을 연대순으로 읊었다. 곧 큰 목소리 두 개가 한꺼번에 자기 말만 외치기 시작했다. 가끔 안절부절 못 하는 아티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으나, 곧 아서의 패배로 끝난 듯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모처럼 만족스러운 하루의 마무리였다.



6. 야간 할증

밤이 되었다.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 아서는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눈을 번쩍 떴다. 새파란 눈이 흥흥하게 빛나며 창문 너머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꼭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밤이다.

아서 무어는,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예민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차지 않는 데가 있으면 그날은 물론 그걸 해결하는 날까지 누워 봤자 4시간은 뒤척여야 하는 사람이었고, 오늘도 그러했다. 아서는 밤이 새도록 양을 세다가, 결국 눈을 한 번 떴을 때 샛별이 뜨는 걸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글렀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나갔다. 이런 날은 차라리 밤을 새워 버리는 편이 나았다. 늦잠을 자고 약속까지 모조리 어기느니 어차피 대외적 이미지도 망한 거, 차라리 꾸벅꾸벅 졸면서 ‘아, 저놈은 원래 저러

지!’ 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나았으니까. 아서는 한숨을 쉬고 지붕 위로 놓인 사다리에 기어 올라갔다. 기술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하늘 높이 지어진 건물들은 동쪽 하늘을 죄다 가리고 있어서, 숨이 턱 막혔다. 아서는 입을 꼭 다물고 하늘을 응시했다.

—고향의 하늘이 그리지 않나?

“.....”

—한번 다녀 와, 쉽지 않은 기회니까. 지난 학기에도 집에 안 갔던데?

“그놈의 집이 뭐가 좋다고. 손님이라고는 환자밖에 안 오지.”

“알리키, 알리키! 집에 있나!”

“이것 보라고. 밤이나, 낮이나.....”

아서는 새벽 5시부터 달려 들어온 ‘손님’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은 분명 아티라던 꼬맹이를 데리고 있던 선장이었는데, 머리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는 채로 금고를 한팔에 끼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알리키는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할게. 아무튼! 이것 좀 봐, 뭘로 맞았는지 아주 피가 철철-”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얼마 만이지…….”

그는 아직 잠이 덜 깬는지, 선장의 얼굴은 똑바로 보지도 않고 또 술 마시고 대판 싸움이라도 벌였는가 했다. 알리키가 천하 태평한 목소리로 반쯤 웅얼거리면서 안경을 고쳐 쓰고 문을 활짝 열었다. 아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마당 한 구석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래서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아서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데- 아서가 알타에 있거나, 알타로 향하고 있으면 주변에는 무슨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초원에서 아인 떼 습격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결말에 불과했다.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꼽아 본다면 손가락이 스무 개라도 부족했다. 갑자기 야영지를 세웠던 나무에 벼락이 내리쳐서 불이 붙는가 하면, 말이 채채기를 하다가 아서를 옆 개울에 떨어뜨렸으며, 갑자기 숲에서 새끼 곰이 불쑥 튀어나와서 미친 듯이 도망을 쳐야 했던 날도 있었다…… 어떻게 살았지? 아서는 갑자기 이제는 볼 수 없는 길잡이를 떠올리며 우울하게 하늘을 보았다.

“음, 이름이 뭐더라. 그래, 말론 씨. 덕분에 무사히 왔습니다.”

“아서, 오밤중에 궁상맞게 마당에서 뭐 하나?”

“젠장, 망할 집구석!”

“뭐, 인마? 와서 일이나 도와.”

아서는 신경질을 버럭 내고 다시 문을 열고 버티고 있는 알리키를 지나쳐 들어갔다.

그리고 펼쳐진 광경에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피가 철철 나는 관자놀이를 이미 푹 젖은 수건으로 누르고 있는 선장은 창백한- 그러나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느새 일어난 아티는 아주 울먹이는 얼굴로 선장의 팔에 매달렸다. 오스카만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 계산이 덜 끝난 오토마톤처럼 멍청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아티가 거의 울었다.

“선장님, 죽지 마세요!”

“안 죽어, 이 어린 자식아.”

“죽으시면 사모님한테 도박장에서 얼마 날렸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더니 선장의 얼굴은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았다. 대체 얼마를 날려 먹었길래 저러지, 일반인도 시체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계승할 만큼? 아서는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 수건을 적시며 생각했다. 알리키는 아주 짠 눈이 되어 바늘을 소독하고 있었다. 이제 잠이 좀 깬 모양인데, 그랬더니 분노가 치솟는 모양이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네 시 이십칠 분?”

“야간 할증 오만 마르카.”

“……음.”

“그거 좋은데. 우리 돈 받으면 테라스 가서 밥 먹자.”

“닥쳐, 아서.”

“흥.”

치료는 수건을 물에 적시는 소리와 때때로 선장이 악, 하는 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매우 고요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결국 아티도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던 모양인지(아니면 이 꼴을 너무 많이 봐서 적응한 건지) 훌쩍거리다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잠들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었어요?”

치료를 끝낸 알리키는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치웠을 그 깔끔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피로했는지,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았다. 로비에 네 사람이 남자 아서는 익숙하다는 듯 뜨거운 물에 찻잔 네 개를 내왔다. 오스카는 여기 자신이 끼어 있어도 되냐는 얼굴이었다. 아서는 입술만 뻐끔거렸다. 어쩐라고, 알아서 해.

선장이 말했다.

“선장실에서 다음 항로 계획 중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을 깨고 뭐가 날아들어오더군.”

“최근에 귀항에 성공한 배들만 털고 다니는 강도단이 있다 듣긴 했는데.”

“아냐, 그런 놈들은 아니었어. 뭐랄까……. 특별히 찾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는 자신의 붕대가 칭칭 둘러진 왼쪽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머리부터 후려치더니, 다짜고짜 어딴냐고 묻더라고?”

“뭐를요?”

“그러니까 말이야. 머리를 치기 전에 묻기부터 해야 똑바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 줄 거 아니냐. 난 그때 이미 잠깐 제정신이 끊긴 사태였다고. 그래서 대체 뭘 찾는 거였지?”

“아니, 이 아저씨는 바보인가…….”

“의사 선생 동생은 아주 친동생이 틀림없군.”

“아닌데요. 시력에 문제 생긴 거 아냐?”

“암마.”

알리키가 아서의 뒤통수를 거칠게 분질렀다. 눌린 머리가 악 하는 소리를 내며 투덜거렸지만 선장은 보기 좋다는 듯 끌끌 웃었다. 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다가, 오스카를 돌아보았다. 아서가 자고 있던 사흘 사이 들은 이미 안면을 튼 모양이었다.

“고생이 꽤 많았겠어.”

“필요.”

“뭐야?”

바로 그 의미불명의 대화에 아서가 따지고 들었으나, 잠시 후 선장이 바닥에 내려놓았던 머리 두 개는 들어갈 크기의 금고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자 주의는 그곳을 향했다.

“아무래도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어째 안 뺏겼네요?”

“바닥 뜬어서 숨겨 뒀었거든.”

그는 꽤나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시선은 잠시 자고 있던 견습 선원 꼬맹이를 흘긋 바라보았다.

“이놈한테 뭐 가져오라고 시켰다가 머리가 깨져 왔을 때도 아마 나랑 똑같이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뭐가 들었는데요?”

“의뢰받은 조달품. 솔직히,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그는 주머니를 뒤져 꺼낸 열쇠 뭉치를 한참 노려보더니 그중 가장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풀었다. 금고 안에는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신문지와 책, 오래된 고문서들과 종이봉투가 잔뜩 있었다. 알리기같이 잘 모르는 이들이 보면 ‘아, 박람회이나 있을 물건들이니까 귀한 거겠구나!’ 하겠지만, 아서와 오스카는 저것들이 그저 헌책방에 가면 발에 채일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 선장은 그 한가운데를 뒤적거리더니, 칼라에서 똑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모든 이들이 알고 있을 책을 꺼냈다. 아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이 번역했던 『아마레 신화』 였는데…….

“이거.”

“내 역작이 고작 물건 숨기는 껍데기로 쓰이다니.”

“너무 유명한 탓이지, 뭐.”

선장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봉투를 꺼냈다. 아서는 그 난생처음 보는 재질을 보고 획 낚아챘다.

“이게 대체 뭐지? 양피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목피지(木皮紙)야, 아짐카에서 쓰는 종이. 동대륙 것과는 많이 다르지?”

“조달 의뢰인이 누구였는데요?”

“모르겠어. 그게 문제지.”

“아니, 정체도 모르면서 의뢰를 덤석 수락해요?”

“이봐, 중개인이 얼마를 줬는지 알아? 아짐카의 상인에게서 이 물건을 받아오는 데에 선금 백만 마르카를 줬다고.”

묵묵히 들던 오스카의 일침에 선장은 억울하다는 듯 아서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더니 소리를 뿜 질렀다.



아서는 그 짧은 찰나에, 봉투 안에 무슨 묵직한 물건 하나가 들어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구형의, 팬던트- 혹은 브로치 형태의 무언가? 그가 봉투에 담겨 있던 것을 손에 쏘아붙자 볼 수 있었는데, 별로 특별한 거 없는 은색 로켓 목걸이었다. 편평한 뒷면에는 ‘Tahta’라는 이름과 함께 수려하게 세공된 나뭇잎 문양이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딱 봐도 이상한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절해? 성공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데.”

“-그래서 둘이나 다쳤네.”

아서는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 알리키가 멍청이같이 착한 탓이다. 얼마나 편하게 보였으면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민 상담까지 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아서는 선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어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둘 순 없어요. 여긴 내 집이라고.”

“그래요. 여긴 병원이라, 당장 내일도 종일 환자를 봐야 한다고.”

어쨌든 알리키 또한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 모양인지, 간만에 아서의 편을 들고 나섰다. 절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어떤 집념까지 보였다. 오스카는 표정으로는 너무 단호한 게 아니냐는 얼굴이었으나, 심정적으로는 고개를 수천 번 끄덕였다. 선장은 한숨을 쉬고, 여전히 지끈거리는 머리를 쿵쿵 치더니 말했다.

“너희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오다 보니 여기였던 거지.”

“차라리 치안대에 신고하시죠? 죽는 것보단 밀반입 벌금이 더 싸게 먹힐 텐데.”

“다음에는 머리 얻어맞는 길로 안 끝날걸요. 금고가 여전히 마룻바닥 안에 있었다면 모를까.”

“……그도 그렇군.”

“애도 데려가요.”

아서는 선장 옆에 앉아 있는 견습 선원을 가리켰다.

키가 작아서 앉아 있으니 정수리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머리가 꺾여 드러난 두피 사이로는 흉하게 생긴 털 아문 상처가 나 있었다.

“이미 공격당한 적 있으면 애도 안전하지 않을 거고, 어린애가 팔려 있으면 좀 봐줄지도.”

“이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성격이 나쁜 건지.”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해 주시죠.”

“뭐, 알겠다고.”

선장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끼 안주머니에 봉투를 밀어 넣고 머리를 흔들었는데, 여전히 어지럼증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서는 대문을 열어 잡고 있었다. 알리키는 아무리 머리 아픈 이야기를 들고 와서 오밤중에 자신을 괴롭혔어도 그래도 환자라고, 그에게 약이며 자가 처치용 도구를 이것저것 챙겨 주고 있었다.

“아티, 일어나.”

오스카는 여전히 의자에 기대어 있던 꼬마를 깨우려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 말뚱하게 뜨고 있는 녹색 눈과 마주치자 깜짝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아티는 졸린 기색도 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는데, 어째 낮에 보이던 웃음기도 하나 없었다. 오스카는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어린아이에게는 제법 무섭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어깨를 다독였다.

“일어나 있었어?”

“아.”

“말을 하지.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견습 선원은 오스카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시선은

잠시, 테이블 위에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나와 있던 금고를 향했다가- 선장을 향했다.

“저, 선장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게 좋겠어?”

“어차피 다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의아하게 바라보는 오스카에게 예의 그 생글생글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스카는 그러고선 선장의 팔을 꼭 잡고 문 너머로 나서는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선지, 누구를 위해서든 저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 줄려.”

걱정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기엔 지나치게 피곤했다. 그들은 한바탕 폭풍이 쓸고 지나간 듯 서로 마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거 들었나? 제르맹 호의 선장이 죽었다던데.
—뭐라고? 그 정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술 먹고 다리에서 넘어졌다나 봐.

금과 죽음이 함께 흐르는 땅!
욕망과 두려움을 안고 배에 올라라.
파도를 헤쳐나가는 자들만이
그 땅에 가득한 풍요를 맛볼 테니까!

서대륙 에스칼란트 Escolante

서대륙 에스칼란트(Escolanté)는 300년 전 칼라, 알타 출신의 탐험가 에드몬 라스파르(Edmon Raspar)에 의해 발견된 대륙이다. 그 이름은 “끝없는 땅”을 의미한다.

에스칼란트는 칼라 왕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 중심에는 가장 큰 국가인 아짐카(Azimca)가 있으며, 이곳은 뛰어난 금 세공 기술과 독창적인 예술 문화를 자랑한다. 아짐카의 장인들이 만든 황금 공예품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신성한 상징이나 거래를 위한 귀중한 물품으로 여겨진다. 서대륙의 문명은 자연과의 깊은 조화를 기반으로 하며, 고대 문명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 특히 거대한 석조 도시와 하늘을 찌를 듯한 탑, 그리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유적들이 발견되곤 한다.

서대륙은 알타 항구를 통해 칼라 왕국과 활발히 교역한다. 에스칼란트에서 가져오는 작물과 자료, 그리고 아짐카의 특산품인 황금 세공품은 귀족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위험을 수반한다. 적색 침묵의 영향으로 서대륙으로 향하는 많은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돌아오는 배는 열에 셋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항로를 왕복하는 자들은 결코 망설이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돈 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을 꿈꾼다.





아짐카의 수도 마라히르(Marahar)는 거대한 강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줄기가 도시를 감싸 흐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강은 “심연의 강”이라 불리며, 물에 비친 도시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금빛으로 빛난다. 사람들은 그 빛을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로 여긴다.

하지만 변영의 이면에는 탐욕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교역과 변영을 꿈꾸며 찾아오는 자들, 고대의 비밀을 밝히려는 학자들, 그리고 강을 건너 탐험에 나서는 모험가들까지—이 도시에는 끝없는 이야기와 소문이 흘러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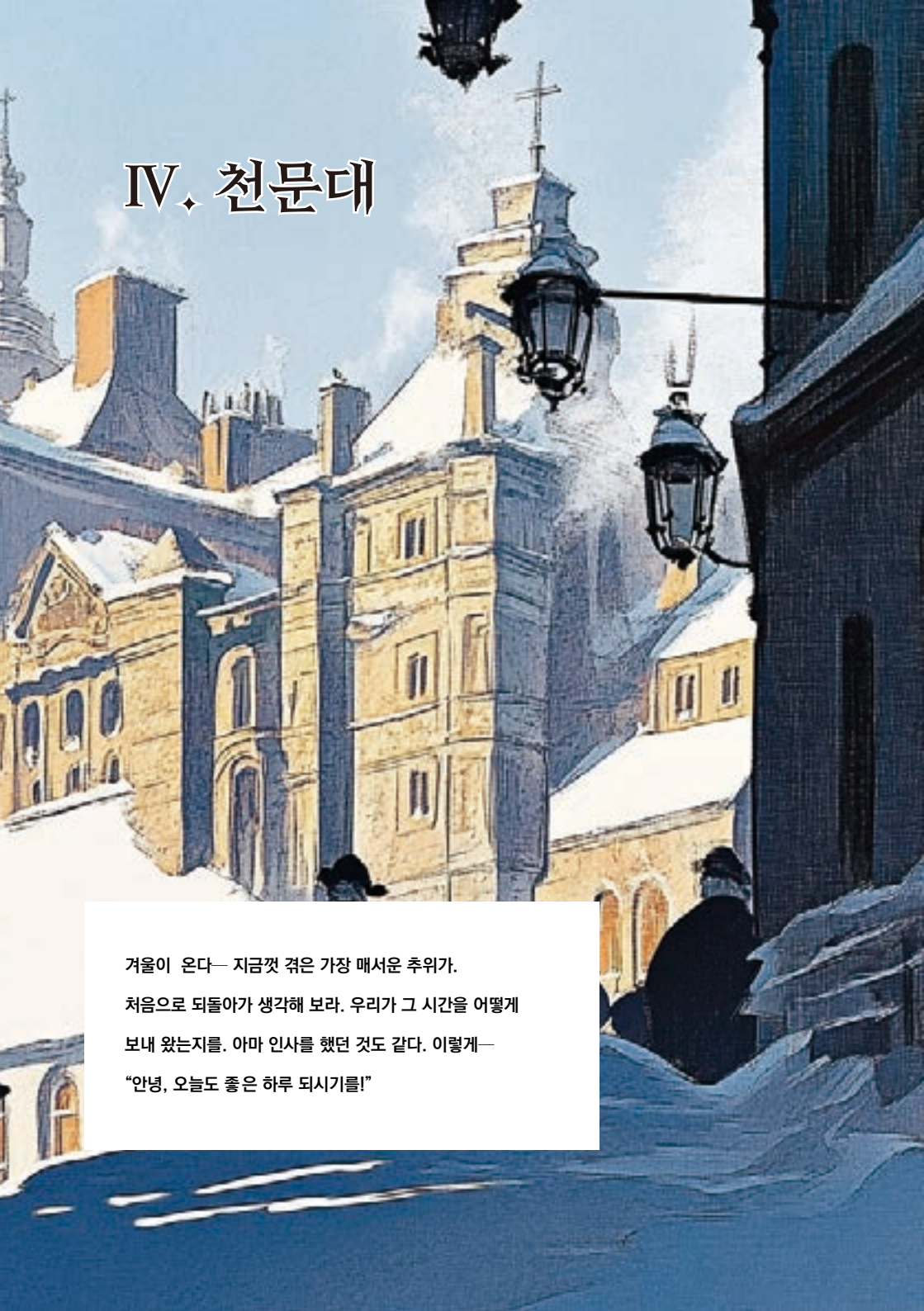
서대륙 에스칼란트의 황금빛 변영 뒤에는 어두운 전운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잔혹한 사건이었다. 아짐카 왕자가 울디림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울디림 측은 왕자가 “아인화병”에 걸렸기에 미연에 사태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핑계에 불과했다. 누군가는 이를 서대륙 내 세력 확장에 대한 울디림의 경고라 해석했고, 누군가는 단순한 정치적 살해라고 비난했다. 갈라의 사람들은 이 소식



을 듣고도 침묵했다. 먼 땅의 비극은 그저 남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알타 항구의 상인들과 어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위협이 되는 고래 떼와 적색 침묵의 확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드나드는 배들에 실린 무기와 군수품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IV. 천문대

겨울이 온다— 지금껏 겪은 가장 매서운 추위가.
처음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 왔는지를. 아마 인사를 했던 것도 같다. 이렇게—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7. 오만불손한 천재

“미쳐버릴 것 같다.”

“왜?”

“줄려서.”

오전 11시, 원래 천문대에 가기로 했던 시간까지도 아서는 출발하지 못했다. 새벽의 그 난장판을 치워야 했고, 심지어 선장은 자기 짐만 챙기고 그 난장판인 금고는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간 채였다……. 아서와 알리키는 그것을 좀 늦게 알아차리고는 이걸 어찌라는 거냐며 고함을 쳤다.

오늘 할 일이 없는 오스카는 손님방에 들어가서 방해 금지 종이까지 써 붙여두고는 자기 시작했고, 알리키는 그 와중에도 병원 문 열 준비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제 그런 일만 없었어도 꽤 평화로운 시간이라 할 수 있었다.

“뭐, 잊어버리자. 이제 우리 일도 아니고.”

알리키는 손을 내저으며 약초를 다듬었다.

그 난리로부터 한 시간쯤 더 지나서 배달부가 병원 물품을 가져다주었는데, 아서는 알리키가 그 배달부와 한참을 입씨름하던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알타 인근에 아인 떼가 많던 것이 과장이나 기분 탓은 아니었는지, 허가를 받고 기사 호위까지 받으며 초원을 가로지르던 상단이 공격을 받아 고지를 한 수량으로부터 또다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달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생긴 알리키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 보였다.

“머칠 분인데?”

“하루에 환자 수가 절반 밑으로 줄어들고 모조리 경상일 경우에만 한 달 운영이 가능.”

“저런, 20일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하겠군.”

“하…….”

“휴가인 셈 쳐, 어차피 나도 병원 일 도와주기 싫다고.”

“기대도 안 했다.”

“수도에는 진짜 안 올 거야?”

“안 간다니까.”

알리키는 두 번 묻지 말라는 듯 눈을 부라렸다. 아서는 입을 다물었다.

아서는 제가 락테아에 뽑힌 뒤로 알리키에게 수도에 같이 갈 생각이 없느냐고 수천 번을 물어보았다. 칼라에서 내로라하는 이들과 안면이라도 틀 수 있는 수도에서 의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난 알타가 좋아.”

“왜, 고향이라서?”

“집이니까.”

“나무 판자에 천막만 쳐도 그건 집이 될 수 있어.”

똑 닳은 푸른 눈이 부딪혔으나 둘 다 서로의 생각에 가득 차서 절대로 의견 일치를 볼 생각은 없어 보였다. 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문대까지는 걸어서 30분, 계획이 모조리 틀어지긴 했지만, 지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는 생각하며 미리 챙겨뒀던 가방을 땀다. 모자를 쓰고 남은 차를 한입에 털어 넣자 알리키가 한숨을 쉬고 아서를 바라보았다.

“언제쯤 오는데?”

“몰라. 저녁 먹기 전? 더 늦을지도 몰라. 오늘부터 틀어박혀서 번역만 해야 하니까”

“이번 주 주말에 하루 비워둘 수 있어?”

“하루 정도야. 왜?”

“그냥, 뭐.”

알리키는 달력을 보았다. 10월 8일에 붉은 펜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흘 전이었다.

“너 자다가 생일 날린 건 알고 있지?”

“아.”

“기껏 동생이 알타까지 왔더니 굶겨 보내자니 마음이 안 좋다. 테라스 가서 밥이나 먹자고.”

“흠.”

“뭐, 고맙다던가, 감동이라던가- 그런 말은 없어?”

흠.

아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안 해?”

“아.”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리고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알타에서는 모처럼 맑은 날씨였는데, 밤새 눈이 왔는지 땅에는 신발 밑창이 다 파묻히도록 쌓여있었다. 아서는 뒤에서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역정을 내는 알리키를 무시하고 마차를 잡았다.

*

그러나 알타 천문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으로부터 20분이 늦은 뒤였다.

눈길이 판단 착오였다. 모든 사람이 걷기가 그렇게 싫었는지 마차를 타고 다녔고, 심지어 대로 쪽에서는 행인이 사고도 났던 모양으로 한참을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겨우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아서는 대체 왜- 굳이 관측실에서 만나야만 했는지 저주를 했다. 그는 락테아에서 그 성질만큼 잘 알아줄 정도로 체력이 저질스러웠는데, 네 층 때를 올라갈 때는 드디어 난간에 걸터앉아서 숨을 들이쉬어야만 했다.

“어라, 아서 무어.”

그러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파토스 대학의 언어학 교수와 눈이 마주쳤고, 아서는 여전히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상태로 머리만 꾸벅 숙였다.

“.....”

“.....아, 상태 안 좋군. 괜찮나?”

“방금…… 상태 안 좋다고 하셨……
헉. 아니요.”

아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던 학
자는 그의 몰골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이 되었다. 관측실에 가는 모
양인데, 하긴. 자느라고 오후 1시에
있는 강연도 못 다닌다는 자식이
고행을 겪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서가 숨 고르는 것을 기다
리며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아
서가 드디어 기침과 함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자 그는 곧바로 본
론을 꺼냈다.

“저 책을 봤나?”

그는 나선형 계단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1층 중앙의 [천구의 진리]
책을 가리켰다. 아서는 아마도, 책
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것은 저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며 고
개를 끄덕였다. 들판에서 한 것 이
후로 아서는 손도 못 대긴 했으나,
아마 그 뒤 내용도 비슷한 원리로
작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해석해 봤어?”



“아직 절반도 못 했죠. 중간부터 ‘다른 언어’가 나온다는 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네?”

“이단심문관들이 아침에 다녀갔어. 12장, 그 부분부터는 덮으라고.”

아서는 무슨 소리냐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파토스의 교수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주위를 살피듯 두리번거리다, 아서의 귀에 작게 말했다. 지금 아주 담배가 피고 싶거나 술이 마시고 싶다는 얼굴이었는데, 아서는 잠시 후 그 이유를 알았다.

“이단의 암호란다.”

“이단이요?”

“정확히는, 라파의 기사들이 쓰는 주술이라고 말아야.”

“아.엥?”

수궁하는 듯 하다가, 아서는 고개를 쳐들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상하지?”

“엄청나게. 누가 봐도 천 년도 더 전에 보존된 책이 분명한데.”

“그래서 할 일 없어진 어학자들끼리 모여서 학술적인 이야기 자리나 마련해 보기로 했는데, 어때. 주말에 올 생각 있나?”

아니,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 하지 말라는 책 연구 동호회가 분명하지 않은가. 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선약이 있어서.”

“흠? ‘그’ 아서 무어가 다른 사람과 약속?”

“.....아니, 가족이랑 밥 먹기로 해서.”

“아, 그럼 그렇지. 나는 또.”

“예?”

“나중에 보세, 나중에! 뭐, 11장까지는 허가가 났으니 아마 반 잘린 연구
뿐이겠지만- 해야 할 일은 많으니.”

아니, 대체 ‘그’ 아서 무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아서는 어찌 찻잔의 얼음
로 멀어지는 파토스의 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능청스럽게 뒤
돌아 가면서도 손을 흔들었는데, 아서는 대충 다시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관측실로 발을 옮겼다.

서문 내용에서부터 예상은 했지만, 아마 ‘금성’을 부정하고 나서니 교회
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서는 좋게 생각하기로 하며 눈
을 느리게 감았다 떴다. 어차피 그에게 전문 사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학교뿐이었는데, 그걸 회수하겠다고 누가 달라고 해도 들판에서
난리법석 중에 잃어버렸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30분이 걸려 여섯 층을 더 올라가고 나서야 아서는 관측실에 도착했다.
그렇잖아도 햇빛 안 보고 살아 창백하기 짝이 없는 안색이 아주 파리하게
질려 있으니 주변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쏟아졌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
를 겨우 옮겨서 거대한 나무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어젖혔다.

“라르센 교수님?”

“아, 왔군.”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르센 교수는 천체망원경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서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신기하지 않나? ‘기적’이란 것 말이야.”

알타 천문대 옥상의 하늘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두컴컴해서,
밤이나 다름없었다. 아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조차 없고 맑으니,
좌표 측량을 위해 천문학자들이 설치해 둔 하얀 포물선형 기둥들만 없다면
이곳은 공허 한가운데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 비정상적인 풍경은 칼라에서는 최초로 생긴 천문대에 날씨에 굴하지 않는 연구를 위해 건물 자체에 내려 준 기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천백 년 전 교황이자 군주였던 유일무이한 왕이 직접 하사한 것이라 했다.

“태양이 이 땅을 비추는 시간에도 우주는 움직이고 있지.”

아서는 라르센 교수가 하늘로 손을 뻗더니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눈을 돌렸다.

“고대인들은 우주가 세계수라고 믿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일부고, 저 별 하나는 나뭇잎, 즉 인간 하나의 목숨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 믿었죠.”

“그래, 그리고 땅에 떨어져 다시 태어난다고 했지.”

라르센 교수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아서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땀을 흘리며 지쳐있는 모습이 제법 우스웠는지 너털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다시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서는 그와 면식이- 단 한 번 있었

다. 지도교수인 노먼과 고대 문명 연구회에 동행했을 때, 고대인들의 우주론에서 몇 번 인사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아마레 신화’를 번역 중이었기 때문에 ‘세계수’에 대한 표현에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은 모양이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 평소와 같죠?”

“자네가 ‘또’ 성황리에 징계 위원회를 열었던 사실은 키츠 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한데.”

“……흠.”

그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라르센 교수는 회상했다.

노먼, 그 사람이 아서가 대학에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이었나? 4년 전, 입학시험을 치르자마자 결과는 보지도 않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제 사무실로 곧장 쳐들어왔고 했다. 불합격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이 재미있어 받아 주었더니 원, 원숭이 하나 기르는 풀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조금 많-이 똑똑한 원숭이.

계절이 한 번 바뀔 무렵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라르센은 아서의 이름을 그해 락테아 아카데미 수석자 명단에서 발견했다.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입학하기도 전에 아서는 이미 사전 없이도 고대어를 모국어마냥 번역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묻는다면 왜 못 하나는 대답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수재 유형이었다.

다만 불세출의 천재라 불리는 재능에는 안타깝게도 천 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빌어먹을 성질머리가 동반되었다. 염두에 둘 점은 아서 무어가 평민이라는 것이고, 재학 4년 이래 신입생 후로 동급생 사이에서는 싸움을 걸지언정 시비를 걸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 징계 위원회 사유가 폭행이었나?”

“그놈이 먼저 제 머리에 잉크를 쏟아부어서 쌍방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무튼 때렸단 말이군.”

“개가 먼저 제 머리에 가방 던졌어요.”

“입학 연령이 15살인 건 조정이 좀 필요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히 하나 있었다. 라르센 교수는 끝끝 웃었다. 락테아도 그렇고, 키츠 대학도 그렇고. 아마 파토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민도 특별 입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들은 모두 귀족 중심적이었다. 그러니 평민 출신이면서 수석을 차지하는 아서 무어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수를 제하면 아카데미 내에서 그에게 서슴없이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정확히 열다섯 명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오스카였다. 언젠가 ‘저것도 화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온 대답이 ‘편해서 좋다’는 것으로 그 성격을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요즘은 망나니라고 불리던데.”

“별거 안 했는데요.”

그러나- 친구는 없고, 적조차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당사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관심 넘치는 무관심을 달가워할 텐데, 인간관계 따위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로 여기는 청년은 평민 출신이라고 무한한 호기심을 보이며 제게 건초를 던져대는 샌님을 상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작 아드님을 후려패고는 기꺼이 징계를 받고 뵈는 게 없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편을 훨씬 쾌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서는 뒤통수를 긁적였다.

“매일 외출해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던 난봉꾼들보단 도서관 지박령이 훨

썩 건전하죠.”

“작년에 클럽에서 토론하다가 재떨이 던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던지진 않았습시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지.”

“아무튼 그 뜨거운 걸 맨손으로 들어 옮겼다는 말이군.”

동급생들은 그를 미친 자식이라거나 락테아의 투견이라느니, 욕이 전공이라느니 아주 가지각색의 호칭을 경멸을 담아 불렀는데- 과연,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아서 무어의 징계 위원회는 분명 엄보였으며, 예견된 수순이라는 거였다.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이 바로 한 달 전이었고…… 그렇다면 예상가는 바가 하나 있었다.

“자네, 여기 온 것 자체가 징계로군.”

“썩.”

정곡이다. 아서는 부정하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 항상 이 교수님앞에 서는 어찌 생각하는 게 모조리 들키는 기분이라 최대한 대화를 피하고 살았는데, 방금 생각난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에 하필 시비를 걸어왔던 자식이 이사회 임원의 자식이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이것도 꽤 약한 편이었는데, 아마 길잡이 하나만 붙여 보낸 것은 당해 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순진한 오스카에게는 단순히 학교의 업적 선점을 위한 속도전인 것처럼 꾸며 뒀겠지만.

“[천구의 진리] 필사해 가는 거였겠지. 아쉽겠군, 이제.”

“뭘, 설 수 있으니까요.”

“못 설 텐데.”

라르센 교수는 궁금하다는 듯, 책상 위에 깃펜을 내려놓고는 그를 바라보았다.

“달렌 교수가 자네를 보냈다면 아마도 말긴 다른 일이 하나쯤 더 있을 텐

데.”

“.....음.”

“나도 알 수 있겠나?”

“어, 그다지 중요한 과제는 아니었는데요. 그게 궁금하셨나요? 오스카한테 듣기로는 마법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던데.”

“그건 나중에.”

왜 사람이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난 마법사 얘기나 하자고 부른 줄 알고 꼭두새벽부터 그 공부만 하다 왔는데.

아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이미 ‘안 중요하지!’ 하고 우선순위에 서 지운 지가 오래라 떠올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

“사람을 하나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을?”

“잠시만요. 이게- 아마 고대어로 적혀 있어서.”

아서는 로브 주머니에서 언제 꺼냈는지도 모를 쓰레기들을 뒤지며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다.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사탕 껍데기들을 모른 척 하며 라르센 교수는 은은히 웃었다. 그리고, 아서는 수려한 글씨체로 적혀 있는 문장을 읽었다.

[발타에서 만나. I가 도착해 있을 거야. 그에게서 물건을 받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겠지.]

”.....“

[당신의 친애하는, 까마귀.]

그리고 아서는 다시 쪽지를 접어 넣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고, 어디서 만나자는지도 모르겠으며 무엇을 받아 오라는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암호문에 가까운 것이, 별로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서는 라르센 교수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선뜻 대답했다.

“자네, 그 쪽지- 나 줄 수 있겠나?”

“네, 그러죠. 뭐.”

그리고 교수의 손에 종이쪽지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잊어버렸다. 앞으로 그것이 무슨 파문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그의 아무 생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이어진 여정이 이곳에서 끝나게 되리라는 미래는 예상하지도 못한 채. 아서 무어는, 이제는 한 치 앞의 고민 하나 없이 안위만을 바라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아서 무어?”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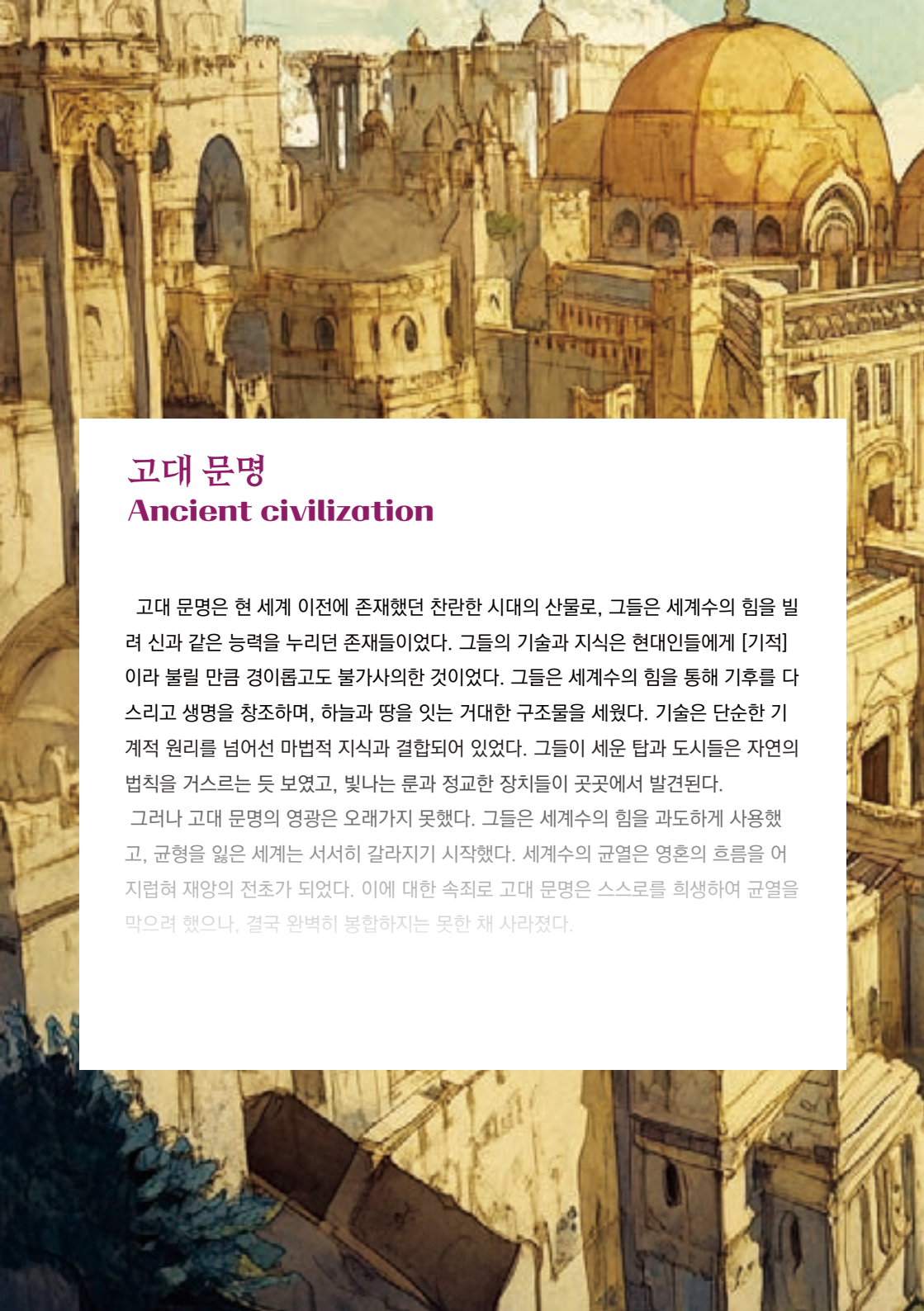
기적이 깔려 어두운 옥상 너머에서 전신을 검은 옷으로 두른 이상한 사람 하나가 마치 새라도 된 것처럼 날아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했다.

“엉?”

“무어!”

“-악!”

그 찰나의 순간, 아서는 종이를 떨어뜨린 손을 거두기도 전에 옆에서, 분명히 옥상 난간 밑에서부터 뛰어 나타난 인영을 보았다. 그리고 머리에서 처리하기도 전에, 뒷덜미가 잡혀 천문탑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대 문명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은 현 세계 이전에 존재했던 찬란한 시대의 산물로, 그들은 세계수의 힘을 빌려 신과 같은 능력을 누리던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기술과 지식은 현대인들에게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이롭고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세계수의 힘을 통해 기후를 다스리고 생명을 창조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 기술은 단순한 기계적 원리를 넘어서 마법적 지식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이 세운 탑과 도시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 보였고, 빛나는 룬과 정교한 장치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고대 문명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은 세계수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고, 균형을 잃은 세계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세계수의 균열은 영혼의 흐름을 어지럽혀 재앙의 전초가 되었다. 이에 대한 속죄로 고대 문명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균열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완벽히 봉합하지는 못한 채 사라졌다.



신의 경지를 탐했으나
결국 파멸의 문을 열었노라
그 영광은 그림자가 되어 울부짖는다
여왕이시여! 우리의 하늘여왕이여!

우리는 기억하리라-
영광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날들,
침묵 속에 잠든 그 이름을.
불꽃이여, 하늘에 달아라-
바람이여, 잊힌 노래를 퍼뜨려라-
황혼이여, 다음 시대의 문을 열어라!

『 To be continued 』

무명 작가의 후기

스토리텔링 연계전공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들은 수업이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이었습니다. 기말 과제가 공모전을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목표는 오직 성에 차지 않아도 분량을 채워서 완성이라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만 한가득 담아낸,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취향이 괴팍한 이상한 소설이 완성되었군요. 고대 문명, 황금빛 도시, 세계를 뒤덮은 재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는 언제나 꿈꾸던 세계였습니다. 개연성이나 전개 방식 면에서는 글을 쓰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 고쳐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선보일 수 있는 글을 한 편 만들어냈다는 것은 마음에 듭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출판’ 과목을 통해 처음으로 한 권 분량을 완성한 소설을 제 첫 번째 책으로, 제 손으로 만든 경험은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이란 것은 작가의 애정과, 편집하는 이의 애정이 모두 담겨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과정과 알게 된 노하우들은 평생을 가져갈 귀중한 경험이겠죠. 글을 쓰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녹여내는 것, 자유롭게 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는 그럴싸한 형태를 갖추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고, 중간에 독자의 시선에서 읽어 줄 좋은 인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내 글을 읽어준 나의 지인들, 주절거리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준 언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내라 해주신 부모님, 언제나 도움 되는 조언 해주신 교수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흥미롭고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지요.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타인의 글이 그러했듯, 이 글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명은 배민지
무식의 전당 Hall of Music



“셋별과 태양이 나란히 뜨는 그 때에

노래는 대지를 침묵으로 물들이도다”

9 781565 812314

ISBN 978-1-56561-231-4



9 00000 >

9 781565 812314